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백서**



Contents

04 발간사

사업개요
08 사업소개
14 주요경과&연혁

현황 및 성과
20 지원업체 현황
23 지원 성과
36 나눔 참여

주요활동
42 사업설명회
44 심사
46 약정 및 교육
48 개업행사
52 사후관리

부록
70 지원대상 수기
96 지원업체 현황

발간사



어느날 갑자기 가장이 되어 한 가정의 생계를 책임져야 하는 여성가장들이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여성가장이 되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 그리 녹록한 일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지치더라도 자녀들과 함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자 희망의 끈을 놓지 않고 삶의 한복판에서 늘 씩씩하게 살아가는 분들, 그 분들에게 작은 위안이 되고, 버팀목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시작한 지 어느덧 1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여성가장의 삶터이자 꿈터인 무지개가게 301개소가 문을 열었고, 여성가장 대표님들은 그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워내고자 씬 없이 달리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하면서 만난 대표님들은 지난 세월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힘들었지만, 엄마라는 무게를 감당해내며 세상에 당당히 맞서 억척스럽게도 살아내고 있습니다.

10년 전 작은 미용실을 운영하던 대표님의 자녀는 개구쟁이 초등학생에서 어엿한 대학생이 되었고, 햇빛조차

누릴 수 없는 반지하 월세방에서 꿈에서나 생각해 볼 수 있었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내고 가슴 벅찬 순간을 마주하는 대표님도 계신 가운데 대부분 작지만 따뜻한 보금자리를 지키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킬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하고 감사해하시는 것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이 함께한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지원을 받게 된 것이 인생의 가장 큰 행운이라 말하고, 내 힘으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과 설렘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며 두 눈에 눈물 가득한 얼굴로 웃음 짓는 모습을 볼 때면 함께한 우리 모두의 눈시울이 붉어지고 가슴 뿌듯해지기도 하였습니다.

빈곤과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이 가장 근원적인 방법이며, 여성가장에게 삶의 새로운 터전을 만들어 주고 가족이 다시 그 울타리에서 함께 할 수 있게 하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이야말로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면서 빈곤과 사회 불평등을 해소하는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점점 살기 어려워지는 우리 사회에서 우리 이웃들이 새로운 희망의 삶터를 만들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일어설 수 있도록 지원하는, 소중한 자립의 등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더불어 함께 사는 공생의 정신을 긴 세월 동안 사회연대은행과 함께 실천해 주고 계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임직원분들께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연대은행 또한 어려운 이웃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연대은행 대표이사

김용택



사업개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자활의지와 능력이 있는
저소득 여성가장이
자영업 창업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물질적, 정신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추진배경

저소득 여성가장의 경우 육아와 생계를 병행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양질의 노동시장 진입이 어렵고 창업을 통해 자립하고 싶은 욕구는 있으나 창업을 하더라도 자금, 경영역량 부족 등으로 성공적인 자립을 실현하기에는 다소 애로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창업자금, 교육, 창업이후 경영컨설팅 등 통합적인 사후관리지원으로 특화된 창업지원프로그램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저소득 여성에 대한 자영업 창업지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한 사업으로서 자립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창업지원기금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이 지원하고 사회연대은행에서는 창업경영 지원과 심리정서적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합니다.

본 사업은 삼성생명이 2000년도부터 삼성생명 사회공헌팀 자체적으로 매월 1명의 여성가장을 선발하여 창업지원을 실시해 오던 것을 창업지원의 전문성과 사전·사후

관리가 결합되어야 진정한 여성가장 자립이 실현될 수 있다는 판단 하에 2006년 삼성생명과 사회연대은행, 여성부가 업무협력을 체결하고 파트너 기관으로서 상호 협력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2012년부터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발족과 함께 삼성생명 지정법인사업으로 분류되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이 함께 희망을 이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의 빈곤화 문제를 해결하고 예방하는데 기여함은 물론 기업의 새로운 사회공헌활동 모델을 제시하고 NPO와의 바람직한 협력모델을 구축하였다는데 사업의 의의가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 기금원천인 삼성생명 비추미드림숍 창업지원기금은 삼성생명 FC들의 기부에 의한 기금적립과 회사차원의 기금적립 지원이 50%씩 매칭으로 이루어져 여성들에 의한 여성지원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 삼성생명 · 사회연대은행은

언제나 당신을 응원합니다.

사업목적 및 목표, 기대효과

생계와 육아를 위한 생계형 창업의 욕구는 증가하나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이 성공적인 자립을 실현하기에는 자금 및 경험, 경영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저소득층 여성가장들에게 창업에 소요되는 자금뿐만 아니라 경영 및 기술지원, 교육훈련 등을 통합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실질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이 프로그램의 목적이 있습니다.

세부목표 1 저소득 여성가장의 영세 창업에 필요한 자금, 경영, 기술, 유통 및 지속적인 교육 훈련 등의 통합적인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인 자립을 성취하게 한다.

세부목표 2 제반 지원활동을 통하여 경제적 자립 뿐 아니라 저소득 여성 가장의 사회적 심리적 자활의식을 고양시킴으로써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한다.

세부목표 3 소자본 창업지원을 통한 수익창출과 지속 발전가능한 자립 모델을 제시하며 사회적 기여도가 높은 여성가장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 증대효과를 창출한다.

기대효과

가. 빈곤여성가장의 창업 및 경영활성화로 인한 자립기반 구축

- 여성가장 창업기금지원과 사회연대은행의 경영활성화 지원으로 실질적 자립 및 재활의 기회 제공
- 안정적 소득창출 및 가정생계 안정화를 통한 여성가장 가구의 건강성 도모
- 사후관리 지도를 통한 여성가장 가구의 사업능력 및 경영자질 증대
- 여성가장에 대한 임파워먼트 강화

나. 생명보험업계 이미지 제고 및 지속가능 경영 모델 제시

-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통한 사회적 공헌에 기여
-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선도기업으로서의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사회책임 경영을 통한 지속가능경영 실천

다. 기업CSR과 사회연대은행과의 사업협력을 통한 바람직한 사업협력 모델 구축

세부사업내용

지원대상

배우자의 사망 또는 이혼으로 가족을 부양해야 하거나 배우자가 심신 장애, 사고, 질병 등으로 노동 능력을 상실한 저소득 가정의 여성 가장

- 모부자 복지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모자가정 세대주
- 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해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저소득 여성 세대주
- 차상위계층이하 여성 가장(저소득 빈곤 여성가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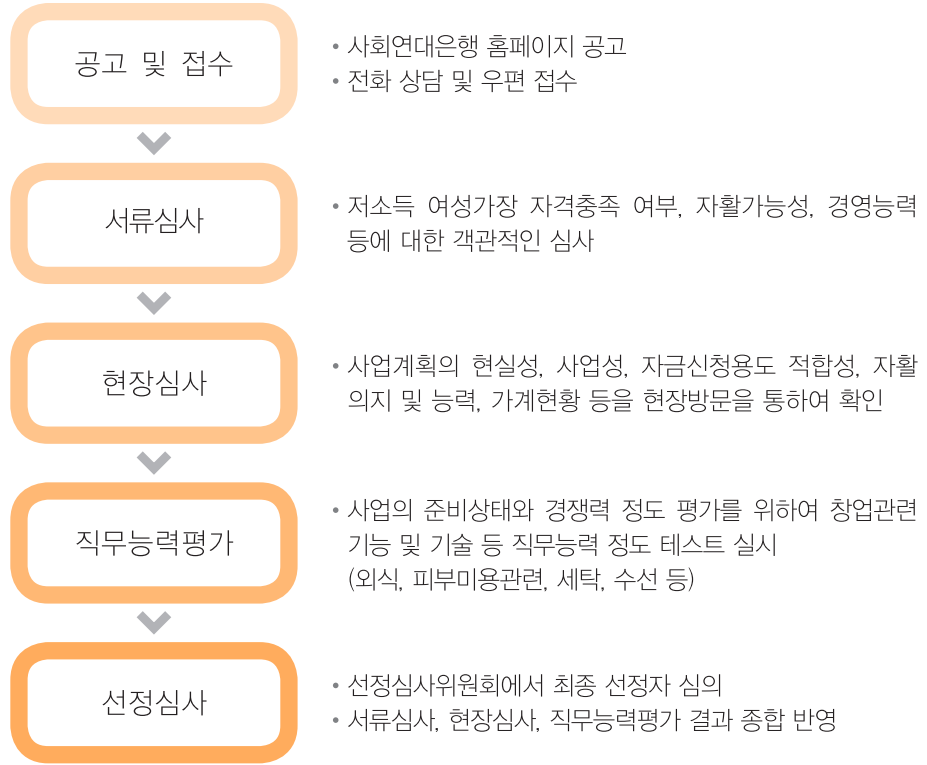
지원한도

2006~2007년도	2008~2016년도	비고
1,500만원	2,000만원	2008년도부터 가구당 500만원 증액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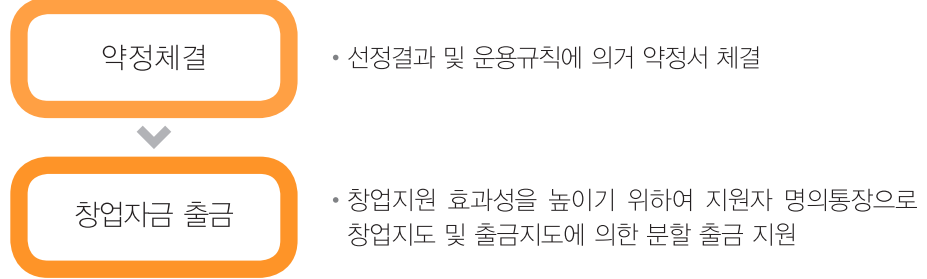
삼성생명이 주도적으로 진행한 비추미드림숍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1호점부터 2007년 150호점까지는 1인당 1,500만원이었으나 2008년 151호점부터는 2,000만원으로 증액하여 실시.

사업흐름

1) 대상자 선정



2) 창업자금 지원



3) 사전·사후관리

- 예비창업자의 창업 사전 컨설팅
 - 아이템 선정 및 기술전수 지도
 - 상권분석 및 입지선정 지도
 - 전세점포 임대차 계약 지도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타당성 점검 지도
 - 인테리어 지도
 - 사업자 등록요령 및 절차 지도
 - 개업마케팅 지도
 - 창업능력 함양 및 기업가 정신 고취 등의 창업관련 교육
 - 기타 창업준비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해결 능력 지도
- 창업 및 사업 지도
 - 점포 입지선정·임대차계약 지원
 - 구매·영업·마케팅·판촉·재고관리·재무관리 지원 및 지도
 - 자금수지표 분석을 통한 매출 및 손익평가 지속
- 지원업체에 대한 동기부여 및 심리적 지지
 - 비전교육을 통한 창업 및 자활에 대한 동기 부여 및 기업가 정신 고취
 - 저소득층의 심리적 안정 도모 및 나눔 의식 공유
 - RM의 밀착지원과 대상자간의 커뮤니티 형성을 통한 심리적 지지망 형성
- 지원업체의 재무상태 개선
 - 재무상담 지원을 통한 가계 재무 설계 및 재무상태 개선

선정기준

구 분	평 가 항 목	세 부 내 역
기본조건	가구별 소득기준	-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80%이내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여성가장
부양가족 상황 및 자원조달능력	부양가족 상황	- 창업지원 신청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유무 및 과다
	자원조달 능력	- 사업자금 자기자본 조달비율 정도 - 후견인, 각 사업지원 요소 등의 유무
사업성 및 재무능력	시장성,시장전망 매출 및 수익성	- 업종의 성장성, 시장 전망, 매출 및 수익성 반영
신청인의 사업능력	사업경험	- 신청자의 자영업 운영경험 및 관련직종 종사 경험 유무
	자격 및 기술보유	- 해당 창업관련 분야 자격증 소지자 및 교육 이수자 우대
상환의지 및 상환능력	신용상태 및 부채규모	- 신용상태 및 부채규모 과다 여부 - 가구내 소득대비 지출 규모
자활의지 등	자활의지정도	- 근로능력 - 자활탐색노력 및 생애 직업활동 반영

주요경과 & 연혁



사업추진일정

사업추진기간 : 2006년 3월 ~ 2016년 12월

연도별 세부
추진내용

2006년	3월	창업지원사업 교육 및 컨설팅 추진방향 업무 협의	2009년	2월	1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2년	2월	1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4년	5월	1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4월	창업지원사업 공고		5월	1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5월	1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7월	1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5월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6월	1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5월	1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7월	1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6월	창업지원사업에 관한 업무협약 체결		7월	2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7월	2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7월	2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06년	7월	65호점 개업행사	2009년	9월	2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2012년	9월	2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2014년	10월	2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12월	100호점 개업행사		10월	2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9월	2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10월	2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2007년	2월	상반기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0년	2월	1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3년	2월	1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5년	1월	홈커밍데이 개최
	3월	상반기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4월	1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4월	1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5월	창업지원사업 공고
	4월	상반기 창업지원교육 실시 및 약정		5월	1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5월	1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7월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6월	하반기 창업지원사업 공고		7월	2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5월	2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8월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2007년	7월	하반기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2010년	7월	200호점 개업행사	2013년	6월	3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6년	5월	창업지원사업 공고
	8월	하반기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10월	2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7월	3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8월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4월	101호점 개업행사		10월	2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8월	3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8월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12월	150호점 개업행사					8월	4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10월	인턴십 프로그램 진행
2008년	2월	1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1년	4월	1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3년	10월	4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2016년	11월	300호점 개업행사
	3월	1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6월	1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10월	4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12월	생활환경개선물품 지원
	4월	1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6월	1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10월	수시접수		12월	경영개선자금 지원
	4월	151호점 개업행사		7월	2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10월	5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2008년	6월	2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2011년	9월	2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2013년	10월	5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2016년	12월	생물자립도조사 실시
	7월	2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9월	3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10월	5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8월	2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10월	3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12월	6, 7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8월	3차 창업지원사업 공고		10월	2,3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12월	홈커밍데이 개최			
2008년	10월	3차 창업지원대상자 선발	2011년	10월	홈커밍데이 개최	2013년	12월	홈커밍데이 개최	2016년		
	10월	3차 창업지원 교육 및 약정									
2008년	12월	170호점 개업행사									



현황 및 성과

2005년도부터 11년동안
301개 업체가
약 52억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연도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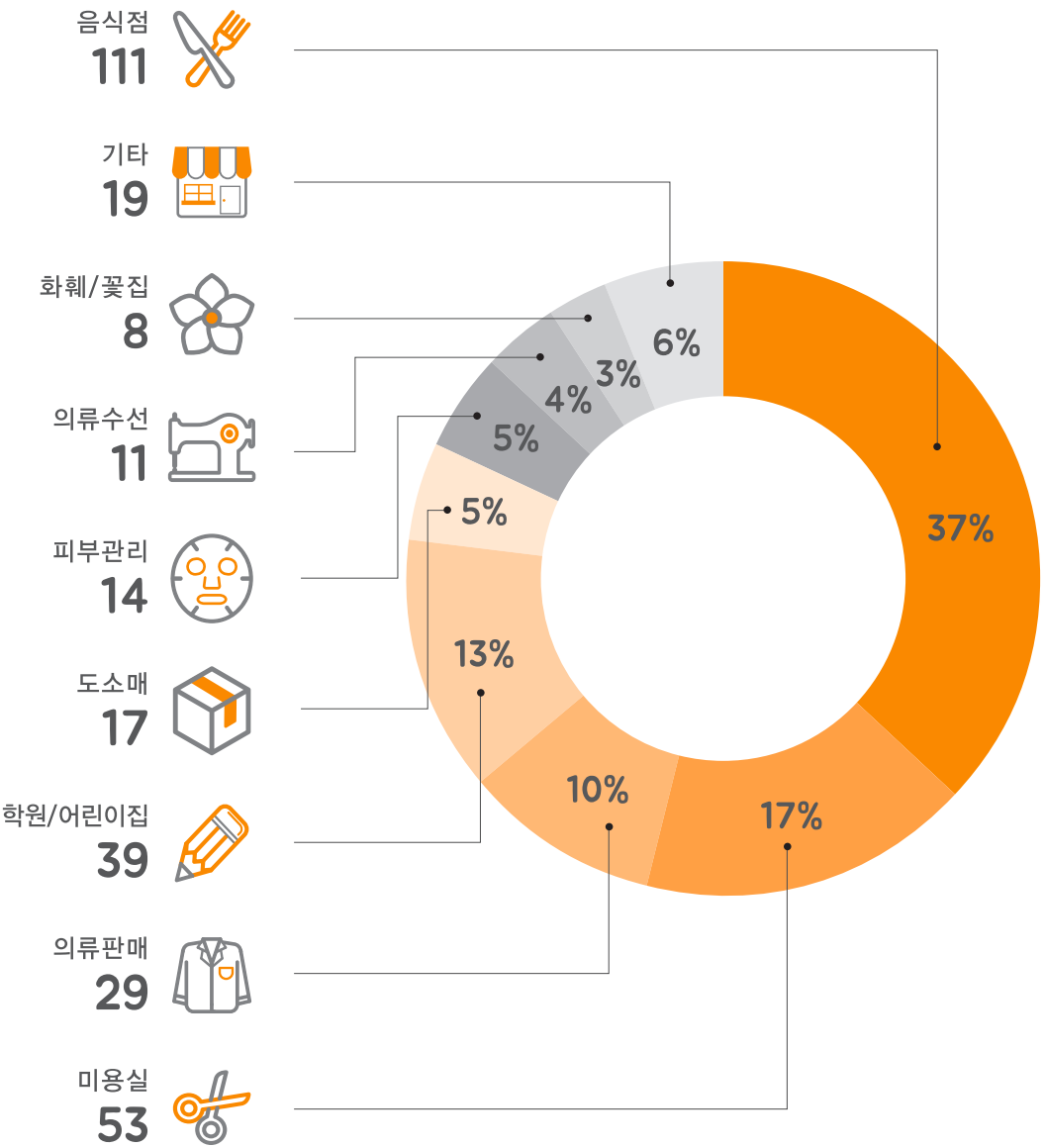
창업을 희망하는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창업에 필요한 자금 및 경영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2005년 시작 이후 지난 10년간 무지개가게 301개소의 자립을 도왔습니다.

* 2005년도 지원사업은 기부처인 삼성생명에서 직접 수행하였습니다.

구 분	지원건수	지원금액
2005년	64개소	960백만원
2006년	36개소	540백만원
2007년	50개소	750백만원
2008년	20개소	400백만원
2009년	20개소	400백만원
2010년	20개소	400백만원
2011년	20개소	400백만원
2012년	21개소	400백만원
2013년	14개소	300백만원
2014년	12개소	240백만원
2015년	14개소	260백만원
2016년	10개소	200백만원
총 계	301개소	5,250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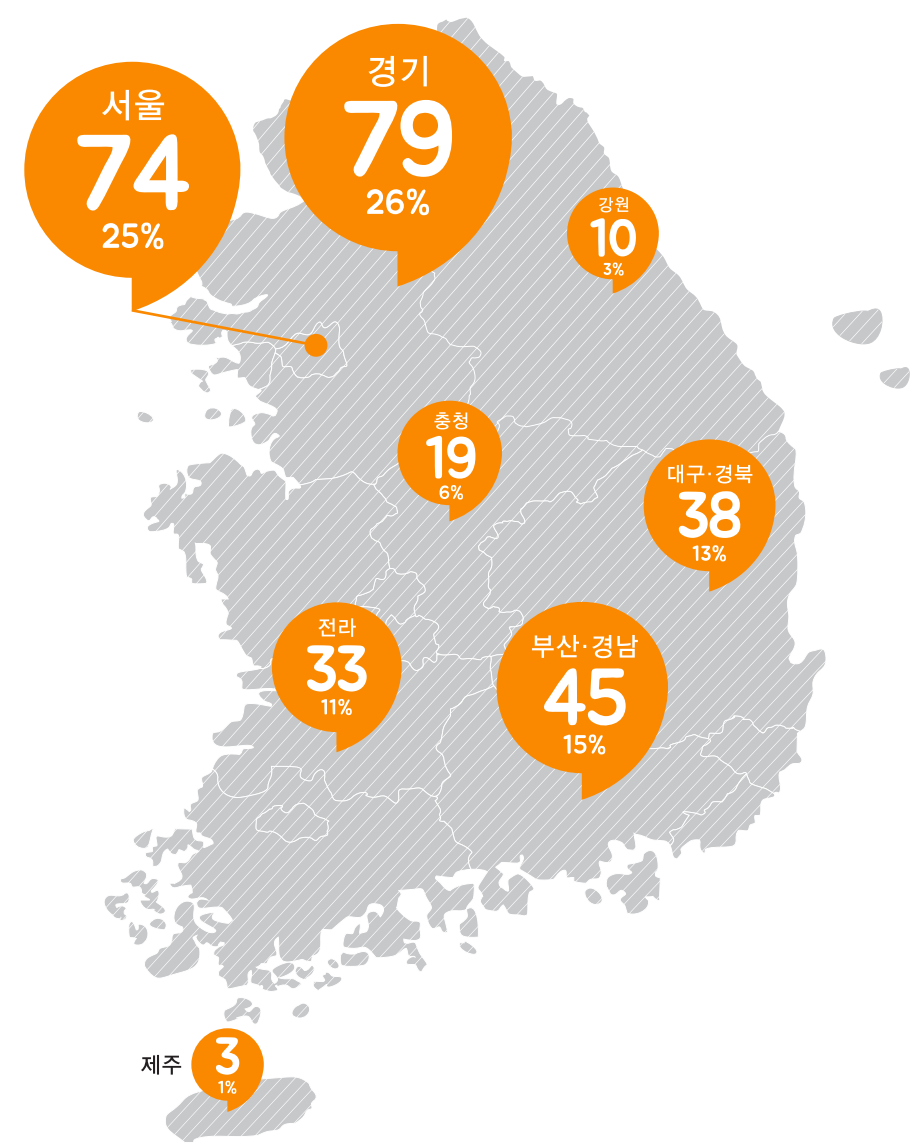
업종별 현황

업종별 지원현황은 음식업이 111개소(37%)로 가장 높으며, 미용실이 53개소(17%), 의류판매업 29개소(10%), 학원/어린이집 39개소(13%), 피부관리 14개소(5%), 의류수선 11개소(4%), 화훼/꽃집 8개소(3%)로 여성친화적업종의 창업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현황

지역별 분포는 경기지역이 79개소, 서울지역이 74개소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부산·경남지역이 45개소, 대구·경북이 38개소, 전라도 지역이 33개소 이며, 충청지역, 강원지역, 제주지역 순이었습니다.



지원 성과

저소득 여성가장의 경제적 자립 및 안정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2005년도부터 2016년도까지 11년동안 301개 업체가 약 52억 5천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아 자립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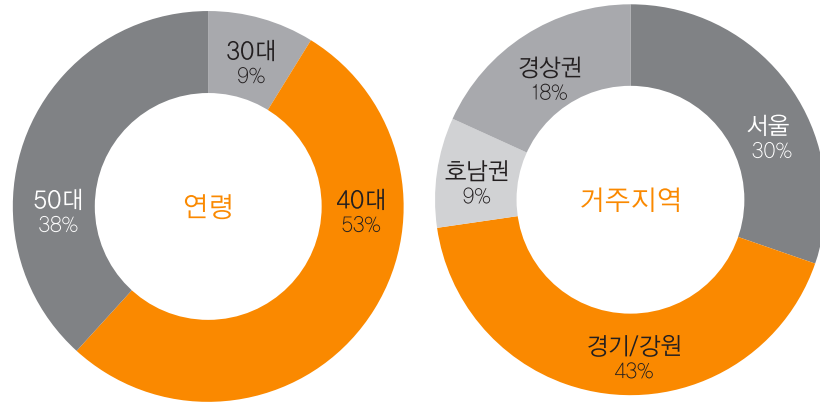
사회연대은행은 ‘저소득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11주년을 맞아 본 사업의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2006년부터 2015년까지 지원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 대상은 2005년도 및 2016년도 업체를 제외한 229개 업체이며, 이 중 82개 업체가 설문에 응답했습니다.

* 2005년도 지원사업은 기부처인 삼성생명에서 직접 사업을 수행하여 성과분석에서 제외하였습니다.

1. 조사개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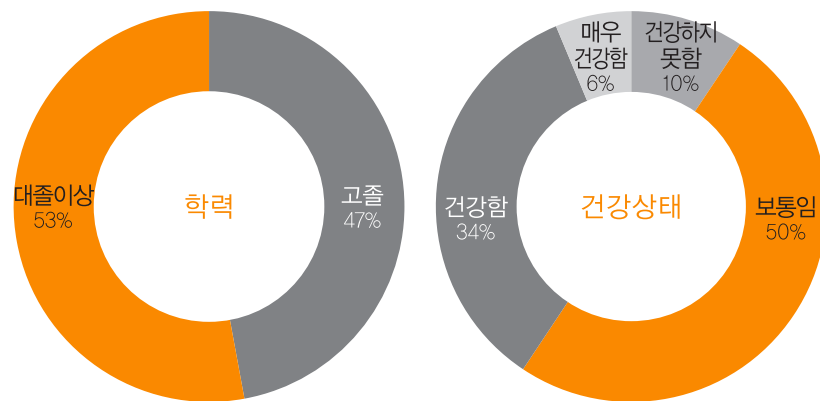
조사목적	<div>여성가장 창업주 특성분석</div> <div>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효과분석</div> <div>사업개선방안 및 향후 발전방안 모색</div>
조사대상 및 분석자료	<div>대상 :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div> <div>조사기간 : 2016년 4월~5월 15일</div> <div>자료수집 : 여성가장 창업지원을 받은 82명</div>
창업지원 사업효과	<div>창업 지원업체, 창업주의 일반적 특성 분석</div> <div>창업성과분석(창업 지원업체, 창업주 개인의 변화, 가정의 변화)</div> <div>프로그램 만족 및 기여도 분석</div>

2-1. 창업주 특성



창업주 연령은
40대가 53%이며,
평균 창업주 연령은 47.4세임
(창업지원 당시 평균 연령은
30대 중반~40대 초반으로 추정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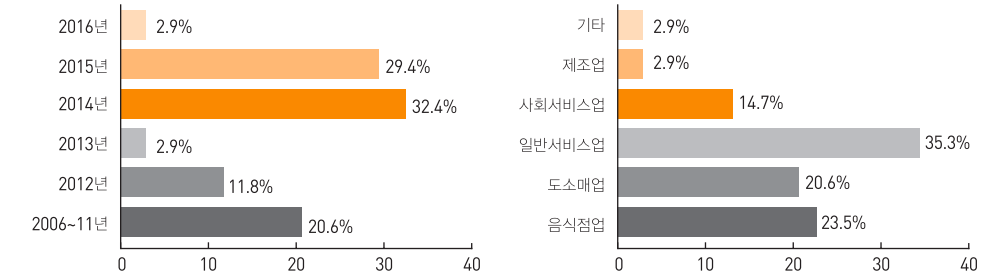
거주지역은
경기/강원 지역이 43%로 가장 많고,
서울 30%, 경상권 18%,
호남권 9%로 나타남
(서울/경기권이 약 2/3를 차지함)



학력은
고졸이 47%, 대졸이상이 53%로
창업주는 대체로 학력이 높았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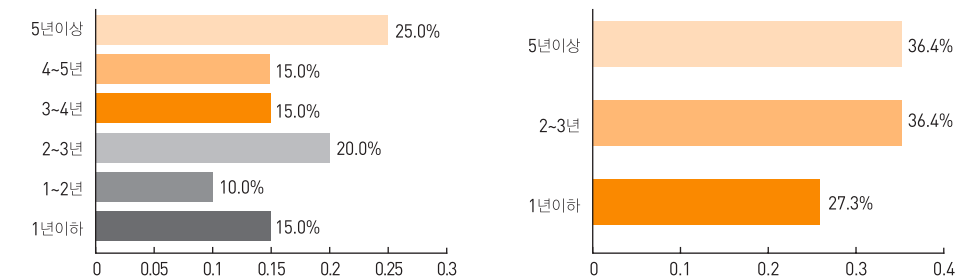
본인의 건강상태는
보통 50%, 건강함 34%,
매우건강함 6%,
건강하지 못함이 10%로,
대체로 건강한 것으로 인식

2-2. 사업체 특성



응답자의 창업시기는
2014년 32.4%(11개 업체),
2015년 29.4%(10개 업체)로
비교적 최근에 창업한 사업체가
2/3 정도로 나타남

창업 업태는
일반서비스업이 35.3%(12개 업체)로
가장 많았고,
음식점업 23.5%(8개 업체),
도소매업 17.6%(7개 업체) 순으로
주로 여성 친화업종을 선택하여 창업함



과거 창업점포 운영기간
평균 : 52.9개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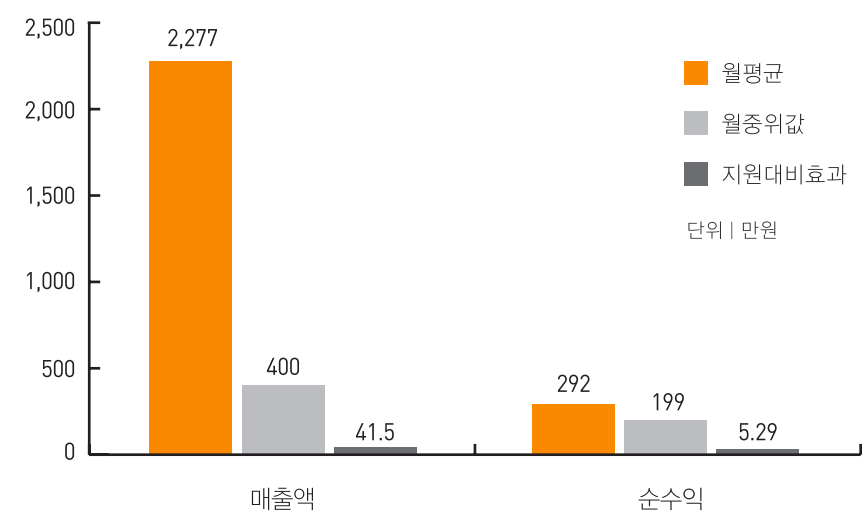
동종업종 취업기간
평균 : 55.1개월

과거 창업경험이 있는 창업주는 58.8%(20명)로 나타났고, 이들의 평균 점포 운영 기간은 52.9개월(약 4년 4개월)로 나타남. 5년 이상 장기간 운영한 창업주도 25.0%로 나타남

동종업종에 취업경험이 있는 창업주는 32.4%(11명)이었으며, 이들의 평균 취업기간은 55.1개월(약 4년 7개월)로 나타남. 동종업종 취업경험이 5년 이상인 창업주는 36.4%, 2~3년 이상은 36.4%로 나타남

이처럼 창업주는 사업체 운영 및 취업경력을 바탕으로 현 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하우는 현 업체 운영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측됨

3-1. 창업성과 : 사업체 성과①



월 매출액

- 평균 : 2,277만원
- 중위값 : 400만원
- 월 매출액 합 : 7억 2,853만원
- (연간)추정합 : 87억 4,238만원

월 순수익

- 평균 : 292만원
- 중위값 : 199만원
- 월 순수익 합 : 1억 5,618만원
- (연간)추정합 : 18억 7,420만원

총 지원액 **6억 8,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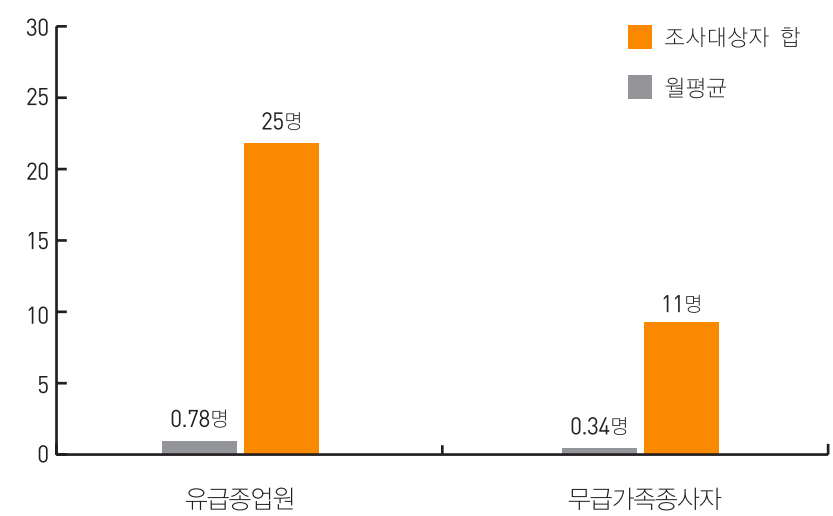
34개 평균 2,000만원 지원 가정

매출액 **280억 5,264만원** 순수익 **35억 9,744만원**

대상자 창업유지 월 총 1,232개월 기준

➔ 지원대비 매출액 : **41.25배** / 순수익 : **5.29배**

3-1. 창업성과 : 사업체 성과②



유급종업원

- 월 평균 : 0.78명
- 월 유급종업원 합 : 25명

무급가족종사자

- 월 평균 : 0.34명
- 월 무급가족종사자 합 : 11명

*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매월 36명의 고용창출 성과를 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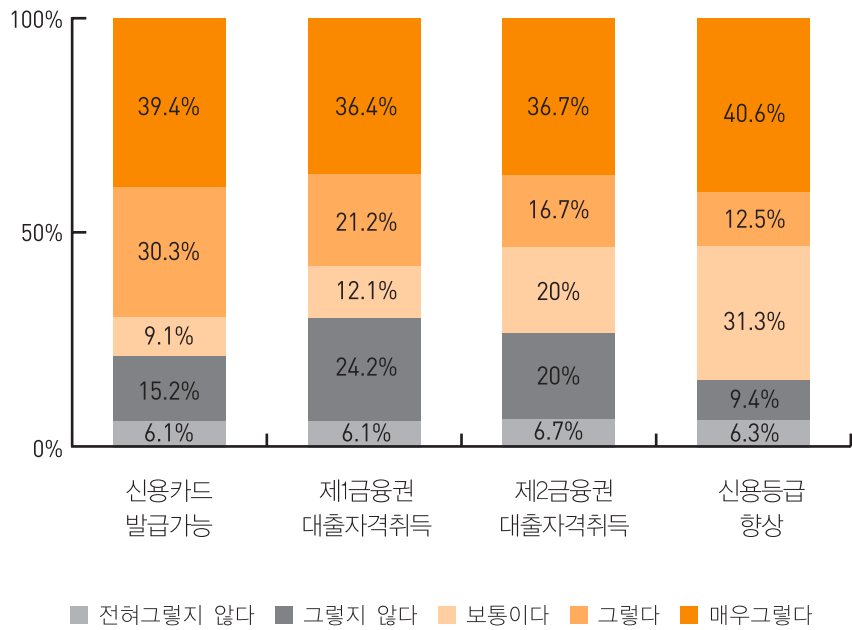
3-1. 창업성과 : 사업체 성과③

분 류	평균(mean)	중위수(median)
시설설비 확대	70.9	80.0
상품 및 서비스 질 향상	79.4	80.0
대출금 감소	65.5	60.0
고객증가	73.9	80.0
매출증가	67.9	60.0
순수익 증가	53.8	60.0

창업당시에 비해 현재 사업체의 변화를 살펴보면, 상품 및 서비스의 질이 향상된 경우가 79.4점으로 가장 점수가 높았고, 시설설비, 고객증가도 80.0점의 높은 중위수를 보임

창업초기에 비해 대출금 감소나 매출, 순수익 증가는 시설이나 상품 및 서비스의 질 향상에 비해서는 다소 평균점수가 낮았으나 보통이상의 점수를 보임. 최근 2년내 개업한 신생업체가 50%이상이므로 장기적인 운영추이를 살펴보면서 업체 경영관리가 필요함을 시사함

3-2. 창업성과 : 개인적 성과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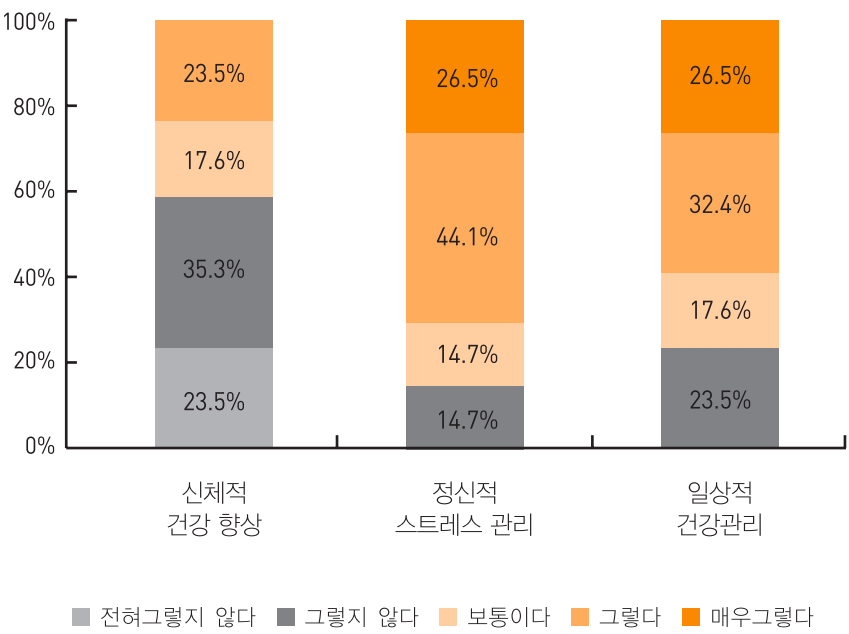
창업이전과 비교하여 창업이후 개인의 경제적 성과를 살펴보면

신용카드 발급자격을 78.1%가 보통이상으로 갖추게 된 것으로 나타남

제1금융권(은행)이나 제2금융권(저축은행, 마을금고, 신용조합 등)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된 사람도 약 70%임

신용등급의 향상은 매우 그렇다 40.6%, 그렇다 12.5%, 보통이다 31.3%로 나타나 84.3%가 신용등급이 향상됨

3-2. 창업성과 : 개인적 성과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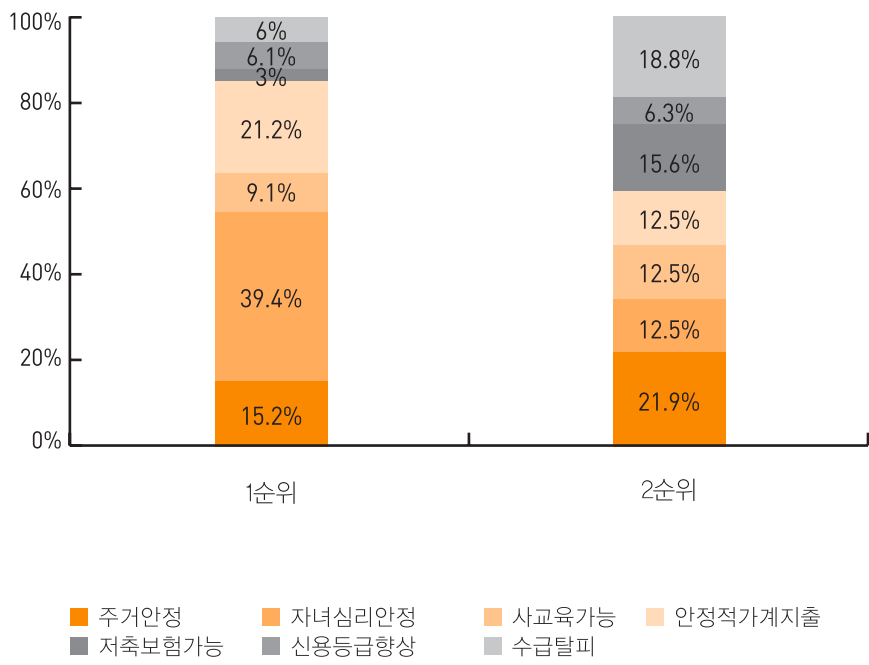


신체적 건강 향상 : 신체적 건강이 향상되지 못한 경우가 58.8%로 나타나 신체적 건강은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사업체 대표와 가정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해야하는 이중역할 때문으로 예측됨

스트레스 : 창업 후 스트레스 관리를 잘 할 수 있게 된 창업주가 70.6%(그렇다, 매우그렇다)로 신체적 건강 개선은 어렵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감소됨

일상적 건강관리 : 일상적 건강관리도 약 60%가까이 그렇다 이상으로 응답

3-3. 창업성과 : 가정의 변화①



1순위로 느끼는 변화는, 자녀의 심리적 안정이 39.4%로 가장 많았고, 안정적인 가계지출 21.2%, 주거안정 15.2% 순으로 나타남

2순위로 느끼는 변화는 주거안정이 15.2%, 수급 및 차상위탈피가 18.8%, 저축이나 보험이 가능해 짐이 15.6%순으로 나타남

* 창업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는 자녀들의 심리적 안정이었으며, 주거 안정에도 창업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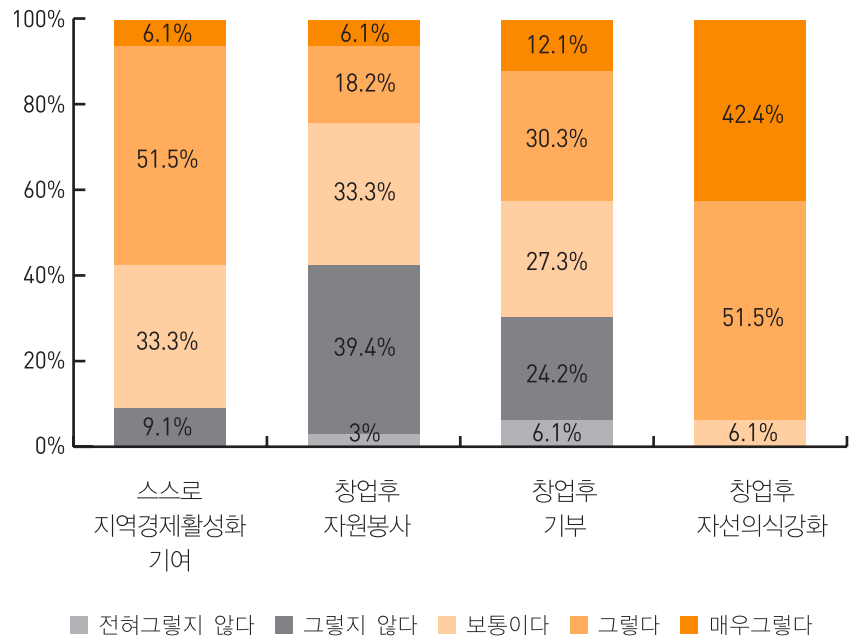
3-3. 창업성과 : 가정의 변화②

분 류	평균(mean)	중위수(median)
주거환경개선	69.6	73.3
의료수준개선	72.9	80.0
생활비 및 경제적 개선	67.2	70.0
가족관계 개선(원가족)	77.4	80.0
자녀교육 및 양육 개선	72.4	75.0
자녀의 자존감 향상	80.6	80.0

창업전후의 가정의 변화 정도에서 자녀의 자존감(부모의 직업 알림, 자신감이
엿보임, 자녀들이 나를 자랑스럽게 여김, 사회적 지위 향상 기대) 향상이 평균
80.6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다음으로 원가족과의 관계 개선이 77.4점, 자녀교육 및 양육환경 개선과 의료
수준 개선도 72점으로 높게 나타남

3-4. 창업성과 : 지역차원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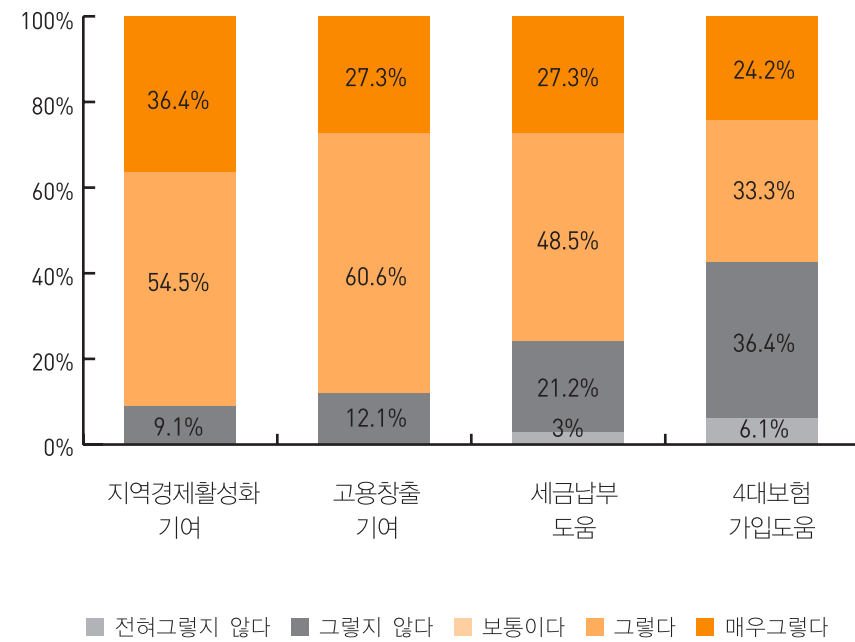


지역사회 차원의 성과에서 스스로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기여
한다고 느끼는 창업주가 9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남

창업이후 자원봉사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창업주가 약 60%, 기부를 하게
되었다는 창업주가 약 70%로 나타나 스스로가 실제 다른사람에게 도움
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창업 후 다른 어려운 사람을 대하게 될 때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도 창업주의 100%가 보통이상으로 응답함

4. 프로그램 만족 및 기여도



마이크로크레딧(창업지원프로그램)이 지역경제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한다고 느끼는 창업주는 정도의 차이는 있었지만, 전체가 기여한다고 응답하여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마이크로크레딧(창업지원프로그램)이 세금납부나 4대보험가입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응답에서 90% 이상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응답하여 사회 연대적인 측면에서도 프로그램이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

5. 결론



나눔 참여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성과 중 하나는 수혜를 받은 여성가장 스스로가 또 다른 저소득 빈곤층을 위하여 나눔 활동에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업체 총 301개소 중 나눔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곳은 44개소 14.6%를 차지하여 상당히 괄목한 만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도움을 받던 사람을 창업 이후 도움을 주는 사람으로, 작은 변화를 만들어 갑니다.

나눔 참여 업체

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1	머슴아미용실	강○영
2	쭈꾸미장터	강○옥
3	슈바움피아노교습소	강○주
4	예능영어학원	고○미
5	동물원가는길	권○란
6	옥이네 찜마당	김○옥
7	더피아노음악교습소	김○숙
8	김유리헤어	김○미
9	왕십리이모네곱창	김○연
10	멍멍강아지	김○숙
11	피부스토리	김○화
12	자연어린이집	김○숙
13	예뻐어린이집	김○숙
14	힐링케어	나○지
15	류명금 미용실	류○금
16	루나헤어	박○애
17	헤어빈	박○신
18	가백	박○미
19	시온헤어	서○순
20	광덕가구갤러리	서○주
21	갯바위	소○순
22	청명단과학원	신○란

번호	업체명	대표자명
23	해법영어교실	심○미
24	새삼성건강원	안○임
25	기장상회	윤○례
26	루디아한복점	이○자
27	야베스	이○임
28	B.E.T공부방	이○라
29	리분뷰티	이○선
30	무이네베트남쌀국수	이○영
31	명품김밥	이○주
32	커피1번가	이○주
33	mu:m(뮤엠)	이○숙
34	웰빙분식	이○자
35	머리에술	장○이
36	리틀베베어린이집	장○주
37	행복한 어린이집	정○영
38	치킨투고	정○숙
39	김밥사랑	조○덕
40	매탄키즈어린이집	조○란
41	대박커텐	천○주
42	꿀먹은오리	최○인
43	지리산 살래국수	한○명
44	수미용실	허○란

나눔에 참여하며

김희자 대표 | 남편 사업 실패로 어렵게 지내던 중에 사회연대은행을 만났어요. 남의 손에 아이들을 맡기고 교육을 받을 때는 여러 가지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다른 사람 가게가 아닌 제 가게에서 일을 한다는 것이 너무 좋아요. 저도 어려운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싶어요. 앞으로 더 잘되면 더 많이 도울 거예요.

박옥경 대표 | 경기가 썩 좋지는 않지만 도움을 받았으니까 조금이라도 후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시작했어요. 장사가 잘 되는 대로 후원금도 차차 늘려나갈 계획이에요. 지금은 작은 금액이지만 1년에 50만원씩 후원하는 게 제 목표예요. 한 달에 한 명씩 사회연대은행에 후원자를 소개하는 것도 제 계획입니다.

류명금 대표 | 이제 누군가를 위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빚쟁이들의 노예가 되어 빠져나갈 수 없을 것만 같던 굴레에서 사회연대은행을 알게 되어 비로소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저처럼 힘든 형제, 자매님! 힘내세요. 이제 이웃을 돌아보며 희망을 주는 일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최병숙 대표 |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이 요리하는 것이라, 노숙자 분들을 위해 매주 한 번씩 주먹밥을 만들었었어요. 그런데 사정상 당분간 봉사활동을 못하게 되어서 다른 봉사할 곳을 찾기 위해 담당 전문위원님께 문의를 드렸더니 이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이렇게 쉽게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니 신기하고 기쁘네요.

정주현 대표 | 아시는 분을 통해서 여성가장 창업 지원사업을 알게 되었는데 정말 감사할 따름이에요. 얼마 안 되지만 저처럼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김현희 대표 | 처음으로 후원이란 걸 해보네요. 어려울 때 도와주신 것을 생각하면 당연히 저도 나누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인연이란 게 맺어졌는데 열심히 일해서 돈도 많이 벌고 후원도 많이 할게요.

신애란 대표 | 예전에 후원을 하던 곳이 있었는데 오랫동안 잊고 있었어요. 그러다 이렇게 또 좋은 기회가 생겼네요. 좋은 일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 기뻐요. 도움을 받았으니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허옥란 대표 | 한편으로 위안받는 느낌이라고 할까요. 이전에 도움받은 것들을 돌려주고 싶기도 하고.. 작은 금액이지만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크게 쓰일 수 있다니 좋아요.

권숙이 대표 | 여성가장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정말 쉽지 않죠. 사업을 시작하면서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과의 차이도 있었고요. 하지만 여기서 머물면 안되겠다 싶어서 더 열심히 했어요. 더 많이 잘되면 더 많이 나누고 싶어요.

김선미 대표 | 항상 나눔에 동참하고 싶었지만 쉽진 않았어요. 모자가정이라서 마음대로 실행하기가 어려웠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도움을 받았으니 저도 당연히 나눠야죠. 작지만 나눔을 시작하고 보니 기분이 참 좋네요.



주요활동

사업설명회부터 사후관리까지
힘이 되어드리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회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본격적인 사업 진행에 앞서 사업설명회 자리를 갖고 사업의 취지, 대상기준, 신청절차 등 세부사업을 설명합니다. 이 자리를 통해 사업신청서 작성법 안내, 질의응답, 일대일 맞춤형 현장상담을 진행함으로써 대상자들이 겪는 신청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사업설명회 현장에는 기존 창업자금 수혜자가 함께하며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의 참여방법과 참여과정 등에 대한 생생한 후기, 선배 창업자로서 자영업 시장에 대한 조언을 전하기도 합니다.



2007. 2



2007. 6



2007. 7

2008. 2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업설명회



2008. 7

서울, 대전, 대구, 광주, 부산 등 전국적으로 실시된 사업설명회



2014. 5

한국장애인개발원 이룸센터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는 ‘양쌈떡볶이’ 양명정 대표님이 먼저 창업한 선배로서 생생한 사례를 전했습니다.



2015. 6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진행된 사업설명회에서는 베트남쌀국수 전문점을 운영하는 조은정 대표님이 창업 경험담 및 노하우를 공유했습니다.



2016. 6

심 사

사회연대은행은 역량있고 준비된 여성가장들이 창업을 통해 온전히 자립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엄정한 심사를 통해 대상자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심사는 1차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현장심사, 직무능력평가, 최종 면접 심사 등 총 4단계로 진행되며 서류 접수부터 최종 선정까지는 약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소요됩니다.

1차 : 서류심사

신청자 자격 적합성 및 사업타당성 검토

- 기초적인 서류 심사를 통해 1차 대상자 선정
- 서류상 기재사항을 바탕으로 최소한의 자격요건 확인 및 사업성 검토
- 취약계층 자격충족여부, 자활가능성, 사업성 등에 대한 객관적인 심사
- 사회연대은행 홈페이지를 통한 공지 및 발표

2차 : 심 사

현장심사: 현장실사를 통해 대상자 및 사업(계획)성 검토

- 현장실사를 통한 대상자 검증 및 사업성 평가
- 사업계획의 진위여부, 사업계획의 현실성, 사업성, 자금신청용도 및 금액의 적합성, 자활의지 및 능력, 가계현황 등을 확인

직무 능력 평가: 기능 및接客력 평가

- 특정 기술을 필요로 하는 전문직종의 경우 자문위원 등의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자의 창업가능여부 및 창업 후 수준에 맞는 기술지도 적용 평가
- 평가대상
 - 현장실사통과자 중 직무능력평가대상으로 분류된 자
 - 평가업종 : 외식, 피부미용관련, 세탁, 수선 등
 - 평가기간 : 1일 과정

선정 심사: 지원대상자 최종선정

- 선정위원회 소집을 통한 대상자 면접 및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들의 추천으로 선정
 - 위원장 1인을 포함한 4인 이내로 구성
- 선정위원회의 심의·의결에 의해 적합한 대상자 최종 선정
 - 선정위원회 과반수 이상의 참석·의결로 선정 확정
 - 서류심사, 현장심사, 직무능력평가, 담당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
 - 위원별 심사표 작성 후 의견을 종합하여 결정
- 선정결과 공지



약정 및 교육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최종 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창업지원금 약정 및 교육을 진행합니다. 약정시에는 기금 및 사업 취지, 운용규칙을 숙지하도록 안내하고 약정을 체결합니다. 또 창업지원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성공 창업을 위한 기업가정신부터 창업 스킬, 재무 및 신용관리 등 단계별 창업교육을 진행하여 창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 초기인 2006년, 2007년에는 2박 3일간의 집체교육을 통해 상권 분석과 입지선정, 마케팅 전략, 브랜드 네이밍, 잘 나가는 가게를 위한 칼라 인테리어, 서비스 마인드 등 분야별 집중 교육을 진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창업의 기본을 다지는 한편, 대상자들간 친목을 다지면서 향후 사업 운영시 의지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프로그램

마이크로크레딧 이해

- 마이크로크레딧의 가치와 철학
- 마이크로크레딧 기금 대출과 상환의 의미

약정 및 자금지원 안내

- 약정 설명 및 안내
- 약정서 작성

비전수립 및 생애설계

- 성공과 실패의 습관
- 인생사명서 작성실습 및 비전나누기
- 생애설계 작성

성공 창업을 위한 기업가 정신과 비전

- 창업의 이해
- 기업가와 기업가정신
- 성공한 기업가의 자질과 특성
- 성공한 사업가의 행동 특성과 성격 요인
- 성공적인 창업 경영을 위한 제언
- 성공사례를 통해 본 소점포경영전략

재무관리 노하우

- 신용관리방법
- 대부업에 대한 이해
- 재무설계안내
- 가계부채 점검 및 사업장 부채관리법

세무법률

- 사업자가 알아야 할 세금
- 효율적이 절세방법(C/S)
- 간편장부 작성법의 이해 & 작성실습

홍보 · 판촉지도



후기

힘이 되어주시고 끝까지 희망을 잃지 않고 일어설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부부가 살아도 힘든 일이 많은데 홀로 사는 여성들의 어려움을 알아주시고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교육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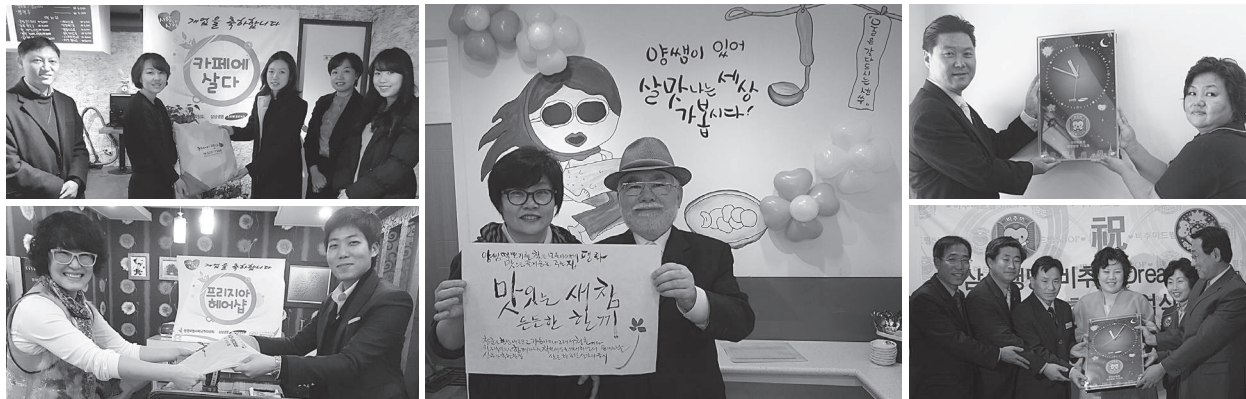
개업행사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자금 지원 이후에 사전·사후관리를 통해 안정적인 창업활동을 지원합니다.

창업자 자신이 수립한 사업계획과 목표달성을 위해 안정적인 창업이 가능하도록 사전관리를 통해 창업아이템 검증, 상권 및 입지평가, 점포계약지도, 인테리어 및 개업마케팅 등을 지도합니다.

사전관리의 마지막 종착지는 개업행사입니다. 지원업체 대표님들의 성공적인 창업과 자립을 응원하기 위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관계자 및 지인들이 함께한 가운데 개업행사를 진행합니다.

새로운 출발을 축하하는 개업 행사에서는 그간의 힘들었던 과정에 대한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인사가 오가고, 대표님들은 창업자로서 앞날에 대한 각오를 다집니다.



지원업체 개업행사에서는 담당 전문위원님이 장기를 살려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시거나 간단한 개업선물로 응원을 대신하기도 합니다.



지원업체 개업행사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삼성생명 관계자, 지원업체 대표님들이 참석하여 진심으로 성공을 응원합니다.

100호점 개업

2006년 2월 18일



2006년 2월 18일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100호점 수미용실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업행사에는 삼성생명 이수창 사장님 및 사회연대은행 김성수 이사장님을 비롯하여 사업 담당자들이 함께 자리를 빛내주셨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100호점 허옥란 대표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나의 꿈을 펼칠 희망을 갖게 되었고 그 꿈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만만치 않았던 창업과정, 울고 웃고 중도에 포기해야만 할 것 같았던 사건들이 많았지만 함께 고생한 사회연대은행 임직원 여러분들. 지금은 무더웠던 여름날 한 장의 추억으로 가슴 속에 남아있습니다.

100호점 기념식이 있던 날, 너무 긴장한 나머지 준비한 말들을 한마디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100호점 잘 키워 희망을 전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200호점 개업

2010년 7월 22일



2010년 7월 22일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200호점인 빨래편의점이 문을 열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개업행사에는 삼성생명 이수창 사장님, 사회연대은행 김성수 이사장님, 최동수 이사님, 200호점이 위치한 송파구구청장님을 비롯해 삼성생명 FC 등 많은 분들이 참석해 창업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300호점 개업

2016년 11월 11일



2016년 11월 11일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300호점인 도시락전문점이 고려대학교 앞에 문을 열고 개업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개업행사에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박동국 사무처장님, 김홍원 차장님 등이 참석하여 창업을 축하해 주셨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300호점 이주현 대표

결혼, 출산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로 취업의 한계를 느끼고 대안으로 창업을 생각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왔지만 경제적인 부분 등에서 한계가 있었습니다. 운명적으로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만나 오늘에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로 생각하고 열심히 운영하겠습니다.

특히 시니어로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10년 후에는 창업으로 얻은 경험을 토대로 중장년이 취업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들겠다는 각오로 열심히 뛰겠습니다.



사후관리 1. 업종별 교육/인턴십

여성가장 창업지원업체의 성공적인 창업을 위하여 업종별 특화교육 및 인턴십 활동을 지원합니다. 미용, 피부관리, 보육 등 업종별 특화교육은 분야별 전문가를 통해 기술전수 및 트렌드 동향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한편 동종업계 간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향후 사업 운영에 있어 상호 의지가 된다는 점에서도 지원업체 대표님들의 만족도가 높습니다.

인턴십 프로그램의 경우 업종별로 전반적인 사업경영 및 사업 노하우, 유통 등 다양한 정보를 단기간에 습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인턴십을 통해 맺은 인연은 향후 사업 운영시 생생한 조언을 주고받을 수 있는 든든한 멘토-멘티 관계로 연결되기도 합니다.

업종별 특화교육

- 2007. 08 귀 혈자리를 이용한 피부관리법(이혈요법)
- 2007. 09 미용트렌드 분석 및 미용시장 현황에 대한 이해
- 2007. 10 외식업 교육&간담회
- 2009. 11 한복/파티 메이크업 교육 및 실습
- 2011. 02 뷰티 리더들을 위한 성공전략
- 2013. 05 변화된 보육 정책 및 대안방안, 교구 제작 지도
- 2014. 02 최신 헤어 트렌드 교육 & 미용서비스업 간담회
- 2014. 03 갯잎치킨 레시피 및 특제 소스 비법 전수
- 2014. 06 캐릭터 네일아트 비법 전수
- 2014. 07 핸드메이드 아기 딸랑이 만들기
- 2015. 04 건강한 제철 반찬 3종 만들기
- 2016. 10 나만의 매력적인 헤어컷 스타일링

후기

미용업은 꾸준히 기술을 업그레이드해야 하는데 최근 들어 기술 교육이 흔치 않아 아쉬웠어요. 이런 상황에 좋은 기회를 얻어 교육을 받을 수 있어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원업체간 상호교류를 통해 각 업체의 운영상의 어려움, 미용시장 전반에 대한 동감과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들에 대한 의견을 같이하며 동지애를 갖을 수 있었습니다.



홍보판촉물 제작교육

- 2012. 08 천연비누&모기퇴치스프레이 제조 방법 기능 전수
- 2012. 12 내가 직접 제작하는 사은품 - 천연 화장품&비누 만들기
- 2015. 08 고객을 부르는 향기 '실내 아로마 디퓨저 만들기'
- 2015. 10 고객을 부르는 향기 '천연아로마 향초 만들기'
- 2016. 09 단골고객을 위한 추석맞이 사은품 '천연립밤&쫄물락 비누 만들기'
- 2016. 11 인테리어 소품 제작 교육 '연말맞이 크리스마스 리스 만들기'

후기

천연비누는 천연화장품에 비해 단가도 저렴하고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아 요즘같은 불황기에 손님 유입의 기초로 삼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아줌마 고객들은 무엇이든 하나라도 손에 쥐어 드리면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일부러 방문하기도 하니까요. 찾아주시는 고객님의 고마움을 생각하며 비싸진 않지만 정성으로 만든 비누를 드린다면 모두 좋아하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인턴십 참여 후기



원희경 대표

한 집안의 가장이 되면서 고민 끝에 창업을 결심하였지만 당장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본이 없었기에 시간을 두고 준비를 하였습니다. 낮에는 직장생활을 하고 저녁이나 주말에는 요리학원을 다니며 기본적인 실력을 키워나갔습니다. 이론적인 부분은 사이버대학을 다니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갔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자본금을 마련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한 기회에 사회연대은행의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최종합격 소식을 듣고 인턴십 교육 기회까지 얻었습니다.

인턴십 교육 장소는 디저트카페였습니다. 처음에는 젊은 아르바이트생들도 나를 어려워했고 저도 힘들었지만 쓰레기 분리수거나 청소 같은 허드렛일을 먼저 하려고 노력하는 등 낮은 자세로 임했습니다. 젊은 친구들보다 습득력도 낮고 몸도 빠르지 못했지만 저를 응원해주고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들이 느껴져 모두 고마웠습니다. 물론 디저트카페 대표님과 점장님도 모든 것을 전수해 주시려고 애쓰시고 걱정해주신 덕분에 무사히 인턴십 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준비하였고 특히 사회연대은행에서 창업자금만 지원해주는 것이 아닌 창업을 시작하는 단계부터 함께 도와주시고 응원해주는 것을 알고 있기에 더욱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창업 현장에서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새로운 도전이고 모험입니다.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레 대표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에 우여곡절 끝에 선정된 이후 카페 창업을 앞두고 소위 잘나가는 커피숍에서 보름 동안 인턴 실습을 했습니다.

이전에 지역자활센터의 베이커리 사업단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어서 베이커리 카페를 고민하다가 개인적인 기술과 능력이 돋보이는 수제버거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바리스타나 제과, 제빵 관련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그러나 막상 창업현장은 어떨지 두려움이 앞서서, 실제 현장을 경험하기 위해 인턴십 활동에 참여했습니다.

인턴 활동을 하면서 커피와 생과일주스 제조방법, 샌드위치·샐러드·버거 제조 방법, 포스의 오픈과 마감시 요령 및 손님응대·대처요령, 영업전략과 전개요령 등 실질적인 교육을 받고 실무를 경험했습니다.

짧은 시간 내에 다양한 레시피를 익히고, 포스를 이용하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짧게나마 경험하고 미래를 계획할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베테랑이신 유신준 대표님의 경영노하우는 창업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김인숙 대표

광주에서 애견샵 창업을 준비하며 한 달 간 경기 군포의 애견샵에서 실전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학생이지만 아직은 엄마의 손길이 필요한 아들들을 떠나 지인의 집에 거주하면서 교육을 받는다는 것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본격적인 창업 전에 선배 창업자를 통해 실전 기술을 익히고, 사업노하우를 익힐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애견 미용 경력 23년차인 1세대 애견미용인으로서 워낙 기술력도 좋고, 현장 경험을 많이 하셔서 배울 게 많고, 또 많은 걸 가르쳐주시려고 노력하셨는데 제가 그 기대치에 못 미친 것 같아서 오히려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동물을 사랑하는 마음부터 창업 노하우 및 기술을 전수받은 만큼 광주에서 스타일을 선도하는, 조금은 특색있는 애견샵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사후관리 2. 네트워킹

여성가장들은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것은 물론 사회적 네트워크도 부족합니다. 이러한 여성가장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마음을 나눔으로써 사업적, 심리적 지지를 얻을 수 있도록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약정시 팀빌딩 워크숍 등을 통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거나 지역별, 업종별 자조모임을 지원하며, 일상에 지친 여성가장 대표님들이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고, 친목을 다질 수 있도록 피크닉을 지원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11년부터는 가족과 함께하는 홈커밍데이를 개최하여 대표님은 물론 가족들에게도 추억에 남을 하루를 선물하기도 했습니다.

팀 빌딩 워크숍

2014. 11. 9. 사회연대은행 교육장



2015. 8. 11. 사회연대은행 교육장



후기

자녀교육부터 영업장 운영까지 다양한 고민들에 대한 참여자들의 다양한 조언들이 해결책이 될 수도,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2016. 8. 30. 상상우리



후기

학창시절의 별명, 꿈 등을 나누며 그때 그 시절의 소녀가 되어 보기도 하고, 서로의 몸을 어루만지며 그간의 상처를 안아주고, 위로하는 시간이 되기도 했습니다. 같은 상처를 지닌 여성가장들이기에 작은 것에도 크게 공감하고 교감하며 서로의 상처를 치유하고, 또 치유받기도 했습니다.

홈커밍데이

2011. 12. 14. 남산 문학의 집 ★ 꿈과 희망의 따뜻한 만남

- 우수업체 시상
- 여성가장 창업지원 사례발표
- '행복한 인생경영' 강의



2012. 12. 12. 카페 더하다 ★ The 웃는 DAY

- 나눔활동 참여업체 시상
- 우수업체 시상 및 사례발표
- 여성가장의 자존감 회복을 위한 힐링 특강(김미화 사회연대은행 홍보대사)



후기

"생업을 포기하고 온 만큼 마음의 큰 위안을 받았어요.

다음에도 꼭 함께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삶의 목소리를 듣게 하고 싶어서 자녀와 함께 참석했는데 아이들에게도 긍정적인 힘을 줄 수 있는 자리였어요"

2013. 11. 30. 사회연대은행 교육장 ★ 사람사랑, 가족사랑 홈커밍데이

- 나눔활동 참여 업체 시상
- 힐링 레크레이션·장기자랑, '우리가족 한마음 뽐내기 대회'



후기

"가족과 함께 외출하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은데,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멀리 대구에서 왔어요. 거리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는데, 막상 참여하고 보니 좋아요. 같이 온 아들에게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요."

2015. 1. 25. 더케이호텔 서울 ★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1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 여성가장 사례발표
- 힐링 레크레이션



후기

"바쁜 일상 때문에 아이들과 대화하기도 쉽지 않은데 서로를 좀 더 이해하는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경제적 지원뿐만 아니라 삶의 여러 방면에서 도움을 받아 감사합니다."

"동료, 선·후배 대표님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아이디어를 얻는 좋은 기회였어요."

피크닉데이

2014년에는 ‘피크닉데이’를 마련하여 여성가장 지원업체 대표님들께 특별한 하루를 선물했습니다. 대규모가 아닌, 삼삼오오로 모여 삶의 무게를 내려놓고 나와 같고도, 다른 이웃들과 소통하면서 마음을 나누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갖자는 취지로 마련된 자리였습니다.

식사와 함께 진행된 가벼운 레크레이션, 산책, 뮤지컬 관람 등으로 이루어진 피크닉을 통해 대표님들은 오랫동안 잊고 살아온 삶의 여유를 만끽할 수 있었고, 지나온 삶과 앞으로의 삶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였다고 전하셨습니다.

2014.10.26. / 10. 29 / 11.1 / 11.8 (팀별 진행)

- 식사·대화의 시간
- 뮤지컬 감상
- 산책



“ 생각보다 따스했던 토요일 오후 ‘대학로 나들이’로 난생 처음 VIP석에 앉아 뮤지컬을 보고 아이들 생일 때나 가볼까 싶은 식사 대접을 받았습니다. 고만고만한 처지의 대표님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며 우리가 한번쯤은 경험해봤을 아프고 쓰린 이야기를 듣고 고개가 고덕여지는 시간도 너무나도 소중한했습니다. 가슴에 쌓인 이 많은 사연들을 어디다 내놓을까 싶었는데, 내가 네 마음을 아노라~하는 심정으로 서로의 이야기에 뜨거워지는 눈시울에 가슴이 후련해졌습니다. ”

“ 지금까지 치열하게 살아오느라 비싼 음식점에서 여유있게 식사를 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었는데 사회연대은행의 배려로 맛있는 뷔페 식사도 하고, 담소를 나누니, 정신적 힐링이 많이 되었습니다. 특히 식사 후 관람한 뮤지컬 ‘빨래’는 많은 부분에서 공감되었습니다. 나도 수년간 고생하며 살았는데, 돌이켜보면 그 힘든 시간들을 나 혼자 ‘빨래’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회연대은행과 자활센터 선생님들, 목사님, 동사무소 관계자, 이웃집 언니, 병원 선생님 등등 주변의 많은 좋은 분들이 나의 무거운 빨래를 같이 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무거워 들지 못했던 빨래들이 주변의 도움으로 하나씩 깨끗해지니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나도 무거운 빨래에 짓눌려서 힘든 생활을 하는 주변 사람들의 빨래를 조금씩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



“ 사회연대은행의 나들이 초대와 반갑고 즐거웠습니다. 사회연대은행과 처음 인연을 맺던 몇 해 전 그 날처럼요. 사회연대은행은 그동안 제가 꼭꼭 숨겨두었던 얘기들을 마음 편히 터놓을 수 있도록 귀를 열고 들어 주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제 얘기를 그냥 들어 줄 사람이 가장 필요했던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다른 분들도 저처럼 ‘여성가장’이라는 이름이 가진 아픈 얘기들을 상처로 남겨두지 말고 새로운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

사후관리 3. 경영컨설팅

최종 선정자를 대상으로 사업장 입지 및 필요에 따라 사전 컨설팅을 진행하며 창업이후에는 1:1 전문가 멘토 연계를 통해 사후관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사후관리는 창업 이후 3년 동안 진행되며 매월 방문 및 유선관리를 통해 이뤄집니다. 특히 2016년에는 사후관리가 종료된 지원업체를 포함하여 영업중인 전체 지원업체를 대상으로 수요 조사를 실시하여 18개 업체에 전문 컨설턴트의 경영개선 컨설팅 및 자금을 추가로 지원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업체의 자립 환경이 개선된 만큼 지속가능성도 향상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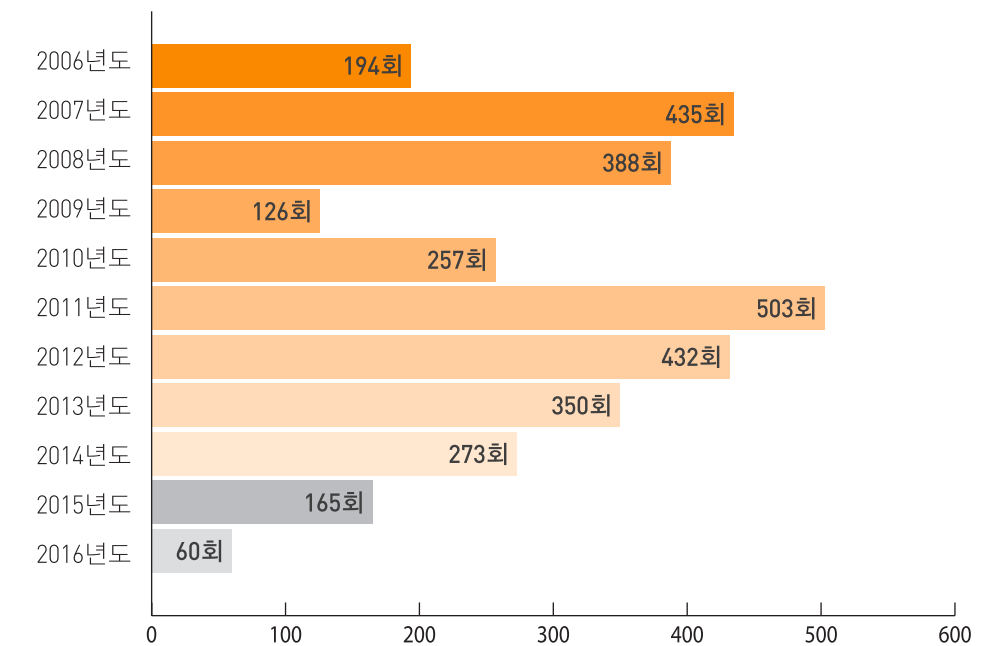
단계별 창업 경영지원

- 창업준비기 : 창업을 위한 아이템 선정, 입지선정 및 상권분석, 점포계약 등 창업 사전 지도 및 사업계획 수립, 창업교육
- 창업실행기 : 사업자등록 및 인허가 지도, 사업계획 수립, 상품(메뉴) 구성, 점포 오픈, 점포 마케팅 등 창업 실행 지도
- 경 영 기 : 창업이후 점포 경영 안정을 위한 경영지도 (매출 점검 및 보완, 판촉방안, 고객관리, 경영전략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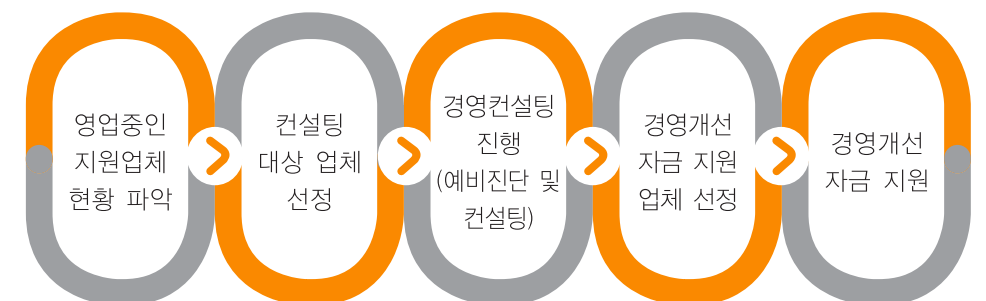
지원내용



연도별 컨설팅 현황(방문 및 유선관리 포함)



경영컨설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절차



사후관리 4. 나눔 참여 지원

지원업체들이 나눔의 선순환에 동참하면서 매출도 향상할 수 있도록 ‘희망의 징검다리 - 1사1소’ 캠페인을 지원합니다.

‘희망의 징검다리 - 1사1소’ 캠페인은 개인, 팀 또는 기관이 여성가장 창업지원업체 한 곳과 결연하여 매월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 여성가장 창업지원업체와 결연후원을 한 나눔 1사는 저소득층 업체와 해당 지역의 소외계층을 한 번에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으며 희망 1소는 고정매출 확보를 통한 매출 증대와 나눔 활동을 통한 자신감 회복, 업체 홍보가 가능해 집니다.

나눔 1사로 참여한 ‘용두동신쭈꾸미’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업체로서 또 다른 지원업체인 ‘한울광고기획’을 통해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홍보물을 지원해 사업의 의미와 효과성을 높이기도 했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업체를 통한 나눔 활동에는 연예인 ‘류시원’ 씨가 ‘스타와 함께하는 행복한 기부’라는 이름으로 참여하여 팬들의 참여까지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희망의 징검다리 1사 1소 참여 현황

후원업체	지원업체	내 용
조영금외 4인	수 미용실	노인종합복지관 이미용 봉사
신경한	용두동쭈꾸미	저소득층 식사 지원
코리아헤드	충주사과김치	조순가구 김치 지원
한국스테노	챌린지수학학원	저소득 한부모 자녀 교육지원
박현우	한양정	저소득층 식사 지원
네네치킨	한울수선	아동보육시설 의류 수선 봉사
용두동신쭈꾸미 (삼생지원업체)	한울광고기획	영세자영업자 홍보물 지원

후기

“어려운 환경에 있는 보육원 아이들의 옷이 제 자식들의 옷 같아 더욱 정성스럽게 재봉질을 하는데 일이 하나도 힘들지 않아요. 활동적이지 못한 성격임에도 아이들의 옷을 가져오고 가져다 줄 때만큼은 활력이 넘쳐요.”

“같은 또래의 아이를 어렵게 혼자 키우는 엄마의 입장에서, 어려운 환경의 아이들에게 작게나마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나눔 1사에 감사드립니다.”

스타와 함께하는 행복한 기부

후원자	지원업체	내 용
류시원	피카소도예미술학원	취약계층 아동 대상 미술교육 지원

후기

“그동안 형편상 미술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루 종일 그림만 그리는 등 미술에 대한 애착이 강한 아이들을 선정해서 교육하고 있어요. 이런 아이들의 미술교육을 후원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해요.”

사후관리 5. 기타

여성가장 창업지원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자립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긴급자금 지원, 자산관리·법률자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긴급자금 지원

학자금, 의료비 등 긴급한 생계비 지출로 인해 지원업체의 균형이 깨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긴급자금을 지원합니다.

후기

“건강상(발바닥 이상)의 문제로 자녀양육 및 사업장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과다한 병원비와 항암제 약물 투여시 거부반응까지 있어 어려움이 많았는데 이를 안타깝게 여긴 사회연대은행 임직원분들의 급여 나눔으로 지원을 받아 전문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나가는 지출이 많아 아이를 키울 능력이 없어 아이를 아빠에게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회연대은행으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 제게는 한겨울 따뜻한 햇살 같았습니다. 밀린 임대료를 정리하고 약간의 이자와 원금도 갚았습니다. 저에게 더 많은 행운이 찾아와 빛도 다 갚고 아이도 데려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하고 열심히 살겠습니다.”



2) 자산관리·법률자문

지원업체의 가게 재정을 위해 재무교육 및 수입·부채 관리 방안 등 자산관리를 지원합니다. 또 예금보험공사, 법무법인 한결 등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창업·임대차·개인회생·지적재산권 등 지원업체가 직면하고 있는 각종 법적 문제에 대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2011. 2 삼성자산운용을 통해 자산관리 컨설팅을 받은 ‘웰빙 분석’ 삼성자산운용 김석 대표이사님은 매장을 직접 방문하여 기부금을 전달하고 삼성자산운용에 김밥을 고정 납품하도록 주문해 매출향상에도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3) 홍보 판촉물 지원

지원업체의 매출 활성화와 역량 강화를 위해 프로모션을 지원합니다. 어려운 영업환경에서 고군분투하는 업체들을 위하여 판촉물을 제공하거나 판촉물을 직접 제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합니다.



후기

“영업장을 이전하여 학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사회연대은행에서 지원해 준 미니언팔각기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학원을 알릴 수 있었어요.”

4) 생활환경개선 지원

지원업체들의 취약한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공기청정기, 청소기, 컴퓨터 등을 지원합니다.





부 록

나의 삶에
터닝포인트가
되어 준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지원대상 수기

나의
작은
바람개비

글. 김옥연

뜨겁던 햇살이 따사로움으로 바뀌고 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가을로 접어드는 지금 올해도 분주하게 지났구나, 다가오는 겨울을 더 바쁘게 보내며 한 해를 잘 마무리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은 내 삶에 활력을 넣어준 터닝 포인트였습니다.

지금은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뜯어낼 수 없는 내 삶이었고 내가 아니면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남편의 병수발은 사회적 단절로 인한 괴리감을 느끼게 했고 막상 남편을 보낸 후엔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없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도움으로 자활교육을 받고 산모도우미 일에 나섰습니다. 암울한 암 병동에서 해넘이를 보내던 내게 갓난아기를 아침, 저녁으로 돌보는 일은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실룩거리는 코, 젖꼭지를 찾는 입, 귓가에 들리는 음악소리 따라 움직이는 귀, 꼭 쥔 조그만 주먹, 먹는 대로 바로 싸내는 예쁜 똥. 내 아이가 아니더라도 하나같이 경이로운 모습들에서 가방 끈 지식과 상관없이 나의 육아 경험만으로도 밥은 먹고 살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허전해서 병수발 틈틈이 읽고 경험했던 대체의학 부분부분과 참돔과 한방약의 효능을 산모마사지와 접목시키고 산후관리 쪽으로 일가견을 갖고 싶어서 경락마사지 전문가에게 거금을 주고 골과 근의 흐름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실현하는 데는 많은 경험을 쌓아야 하기도 했지만 버틸 재력도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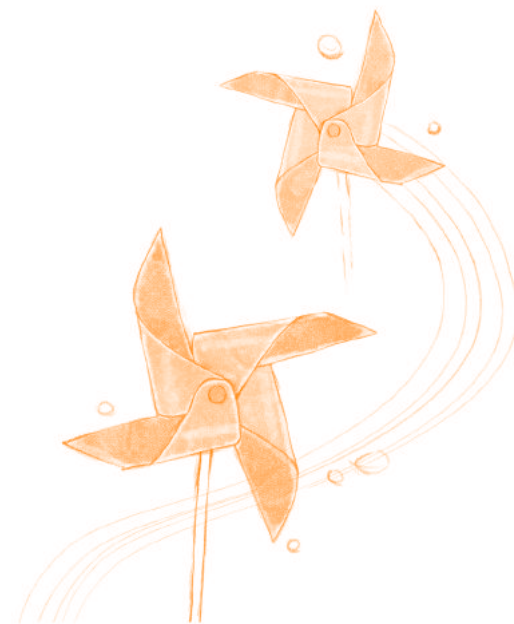
내게는 먼 미래보다 당장의 안정된 밥벌이가 더 다급할 즈음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신문광고를 접했습니다. 그것은 오래 전 남편의 병이 깊어지기 전부터 꿈꾸어 오던, 조그만 분식집이라도 할 수 있는 동아줄이었습니다. 깊은 우물의 물을 끊임없이 퍼 올리게 하는 두레박을 맬 수 있는 동아줄!

절박함으로 사업계획서를 빼곡히 써내고 있던 차에 남동생으로부터 아는 사람이 하는 곱창집을 인수받아보면 어떻겠냐는 거의 강압적인 제의를 받고 돈 한푼 없는 처지에 전수창업을 하고자 그 가게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막상 식당 일에 부딪쳐보니 힘에 겨워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꼭 이렇게 살아야 할까 도망치고 싶었습니다.

남동생이 자기 돈으로 덜컥 계약부터 하고선 하는 말이 “이 언덕을 넘지 못하면 누난 아무것도 못할 거야. 언제까지 애 보는 일로 살 거야.”라고 했어도 어정쩡한 상태로 일하고 있을 때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담당자로부터 면접 보러 오라는 연락을 받고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갔습니다.

거기서 알았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이 FC분들의 참여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얼굴이 화끈거리도록 미안했습니다. 저는 압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상품을 판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보험상품 하나하나를 힘들게 팔아서 그 수익 중의 일부인 몇 천원의 기부가 모여 이 큰돈이 되었다는 사실에 그야말로 몸 둘 바를 모를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그래서 만약 내게 기회가 주어진다면 정말 그 뜻이 물거품이 되지 않도록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그리고 내가 잘 살고 이웃에 나누는 것이 그 값을 하는 것이겠구나 싶었습니다. 요행을 바란 적이 없어 복권을 사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심사에 통과되었다는 소식은 로또복권 당첨과도 견줄 수 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개업식날은 삼성생명 임원분들과 FC분들도 오셔서 떡도 돌리고 풍선 장식을 해선 분위기를 한껏 띄워 주셨습니다. 사회적으로 위축되고 가냘프게 살아가는 처지에서의 그런 뽐뿌한 퍼포먼스는 스스로를 대견하게 만드는 피드백이 되었고 자긍심을 갖게 만든 정말 괜찮은 행사였습니다. 조금은 부끄럽고 수줍게 “저 개업했어요.”라고 알리고도 싶었습니다.



내 자신에게 정말 잘 할 수 있을지 되묻곤 했지만 주어진 여건에서 열심으로 정성을 다하다 보면 어떤 결과가 오지 않겠나, 최소한 밥은 먹겠지, 아니 조금 더 하면 고기반찬도 먹고 아이들 대학도 무사히 마치게 되진 않겠나 싶은 어쭙잡은 용기도 생겼습니다. 이러한 용기가 오늘까지 저를 버티게 만들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세월의 하루하루가 쉬운 날은 없었지만 경험이 찌든 때 끼듯 쌓이고 굳은살이 되어 가는 요즘은 손님과 너스레를 떨 정도가 되었지만 아직도 손님 앞에선 어렵습니다. 이런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나도 그랬었습니다. 하지만 허황된 꿈이라도 꾸었고 그 꿈이 현실이 되게 만들어준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눈이 오면 눈 맞으며 비가오면 비 맞으며 찾아오는 손님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왕십리이모네 곱창집을 열 수 있었습니다.

나이는 그냥 먹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앞으로도 태풍을 만나면 크게 휘청덜 것이고 미풍을 만나면 살랑살랑 하겠지만 바람이 없는 날엔 쉬기도 하며 딸들과 함께 머리가 하얗게 변할 때까지 나는 나의 작은 바람개비를 돌릴 것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을 비롯해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현실에서 힘을 뽐도록 보탬이 되는 디딤돌이며 버팀목들이 되어주신 분들이십니다.

당신들 모두에 감사드립니다!

혼자가

아닌

나

글. 소병순



지난 세월을 돌이켜 보니 긴 터널을 빠져 나온 듯 합니다.

2000년 3월, 사고로 남편은 하늘나라로 가고 세상 물정을 잘 모르는 저는 어린 자녀 둘을 둔 여성가장이 되었습니다.

결혼 후 오로지 전업주부로서의 생활만을 해온 탓에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너무나도 컸습니다. 두 아이를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을 찾던 중 보육교사 자격증을 취득했습니다. 막상 어린이집을 개원하고자 하니 경험부족과 자금부족으로 생각을 접어야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 항상 가정경제의 부족함을 느꼈기에 기회만 된다면 창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소자본 창업이라 해도 자금부족으로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지금 제가 경영하고 있는 가게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인수할 수 있는 기회가 왔습니다. 하지만 자금이 부족해서 인수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던 중 지인을 통해 사회연대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진행 중이던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에 지원하여 인수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 여 동안 근무했던 곳이었기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삼성생명 임직원들과 사회연대은행의 여러분들이 창업 오픈행사와 사은품 등을 준비해 주셔서 별 어려움 없이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벌써 창업한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담당자께 전화를 하면 너무나도 따뜻하게 상담에 응해주시곤 하셨습니다. 꾸준히 방문해 주시고 전화로 위로해주신 담당자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연대은행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제가 혼자가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희망이 생겼고 미래가 생겼습니다. 지금은 아주 미약합니다. 주력 상품이 찐빵과 만두인데 주력상품을 보완하거나 대체 가능한 상품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주변의 찐빵집보다 우수한 무엇인가를 찾을 수 있도록 가게의 경쟁력도 갖추어야 합니다.

능력과 열정은 있지만 자금난으로 인해 꿈을 이루지 못하는 저소득 여성가장들에게 희망 길잡이가 되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이 널리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갖기를 바랍니다.

꾸준히 성실히 운영하여 저도 어려운 이웃들의 힘이 되는 점포를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사람과 함께 하는 저를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그리고

행복

글. 최진희



누구나 살아가면서 실수도 하고 후회스러운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누군가 손을 내밀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준다면 인생을 포기하지 않을 큰 희망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이 그것이었습니다.

저는 아들과 둘이 살고 있습니다. 구구절절이 힘들었던 초년고생을 말할 것까지는 없지만 저에게 아들이 없었다면 놓아버리고 싶은 삶이었습니.

학습지 교사를 하다가 미용기술을 배우고 투잡으로 미용을 하다가 늦게나마 완전히 미용으로 이직한 것도 기술이 있어야 늦게까지 이 아이를 책임질 수 있겠다는 오직 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직원으로 근무하기에는 급여도 급여지만 아이와 떨어져있는 시간이 너무 길어 아이가 클수록 정말 아이를 바르게 키울 수 없는 것이 마음 아팠습니다. 특히 사춘기에는 곁에 두고 아이가 벗어나지 않게 돌보고 싶었습니다.

그때 지인으로부터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소개받고 지원하였습니다. 1차 서류면접과 2차 실사면접에 꼭 붙어야겠다는 생각으로 과장되거나 거짓을 말하지 않고 솔직하고 정직하게 임했고 감사하게도 3차 기술심사, 최종심사 까지 통과하였습니다. 2,000만원이라는 돈이 부자들에게는 별 것 아닐 수 있지만 저에게는 희망의 불씨였습니다.

집 가까이에 샵을 운영하면서 처음으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졌고 정말 '행복'이라는 단어가 연신 내뿜어지는 시간들이 벌써 몇 년째 지속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아이의 중학교 담임 선생님께서도 우리 아이가 모자가정의 아이라는 것을 믿기 어려울 만큼 밝고 친구들을 잘 도와주며 학업성적도 많이 올랐다는 칭찬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누군가에게 도움 받는 사람에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해 늘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이 용기 내어 도전하여 성공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날씨는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날들 되세요.

최선의 마음으로 오늘도

글. 이명옥



영화 속 장면을 펼쳐놓은 듯 기억이 생생한데 어느덧 십년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십년 전의 저는 미술대학에서 서양화를 전공하고 있는 꿈 많은 여대생이었습니다. 미치도록 아름다운 젊음과 열정이 뿜어져 나오는 교정. 실기실의 진한 물감 냄새. 밤새워 작업할 때의 야릇한 새벽 공기. 미래에 대한 숨 막히는 고민들. 모든 것이 아름다운 나날이었습니다.

미술과 음악, 문학 등 예술분야에 두루 관심이 많던 저는 음악을 들으며 밤새워 그림을 그리기도 하고, 예술과 철학을 논하는 스터디 활동도 하는 등 그저 좋기만 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모든 것이 잘 될 거야!’ 라는 제 인생에 대한 이유 모를 자신감이 솟구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나날들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편을 만났고, 제 인생은 다른 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은 등록금 명목으로 제게 돈을 빌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100만원으로 시작했지만, 그렇게 막아주기를 여러 번, 부채는 늘어갔고, 결국 제 3금융의 고금리 대출을 감당해 낼 수 없었던 저는 전단지에 광고되었던 ‘일수’ 까지 사용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당시 채무는 1억원이라는 액수에 근접해 가고 있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결혼하면서 부채상황이 어려워져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들로 힘든 날들이었지만 돌파구를 찾기 위해 이런저런 다른 일들도 시작해보고 시간이 가면서 비싼 사채 빚들은 지인들의 도움으로 싼 이자의 빚으로 바뀌어 나갔습니다. 함께 일을 열심히 했고 수입도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여전히 사는 것은 힘들었지만 예전처럼 기하급수적으로 빚이 늘고 있지 않음에 감사하며 20군데 이상의 크고 작은 채무들을 다달이 꼼꼼히 체크하며 갚아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너무 아프고 고통 받고 그래서 서로 많이 미워하고 상처 줬지만 여기까지 죽지 않고 질기게 버텨온 우리 스스로를 ‘정말 잘했어’, ‘장하다! 장해!’ 하며 칭찬하고 서로 토닥이고 기대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그저 저 혼자만의 바람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른 여자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남녀관계를 넘어선 사람에 대한 배신이었으며, 저는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한순간 한순간이 버겁고 세상에 나 홀로 버려진 듯한 충격에 힘써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패닉 상태로 한동안을 지냈습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사랑스런 아기를 바라보며 ‘난 엄마야!’ 라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예쁜 아기를 내가 낳았구나!’ 하고 자랑스러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은

우습지만 ‘난, 빚쟁이야!’ 였습니다. 죽더라도 주변에 진 빚은 다 갚고 죽자는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투잡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만들어 팔고 있었는데 그중에 한 거래처에서 덤핑으로 물건을 받게 되었습니다. 오히려 일에 몰두하니 시간이 약이라고 차츰 안정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오갈 곳 없던 제게 손을 내밀어 주는 곳도 많았습니다. 친정언니가 운영하던 학원의 교실 한 칸을 쓰게 되었고, 수년전부터 투잡으로 경험한 바 있는 인터넷을 통한 통신 판매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파산자인 저에게 대출을 해줄 곳은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회연대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밤새워 자료를 모으고 고민하고 사업계획서를 쓰고 그렇게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에 문을 두드렸습니다. 기나긴 한숨으로 초조하게 연락을 기다리고 있던 그날의 기억을 평생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감격스런 축하는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전화를 끊고 홀로 앉아 평평 울었습니다.

드디어 꽃과 소품을 겸한 창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아직 저는 성공한 창업자는 아닐 것입니다. 아직 까지도 저는 빚이 많고 눈이 튀어 나올 만큼 놀라운 수준의 매출을 올리고 있지도 못합니다. 하지만 전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넌 성공했어!”

“남들은 불경기라 일이 없어 힘들다고 하지만 넌 일을 너무 해서 손톱이 닳고 손등이 터지잖니!”

“집도 없이 가게 소파에서 퇴근한 척 숨죽이고 자던 게 바로 었그제잖아”

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내 아이가 뛰어 놀고 편히 쉴 수 있는 안식처가

생겼습니다. 또한 시간이 흘러 파산자 딱지도 떼게 되었습니다. 제 깊은 곳의 상처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았고 일하라, 아이 돌보라, 살림하라 너무 힘들고 버거워서 가슴속에서도 버럭버럭 불덩이가 솟구치지만,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고 열심히 사랑했기에 후회는 없습니다. 저의 이 작은 성공이 멀지않은 언젠가에는 누가 봐도 당연한 성공이 되어 있겠지요.

제가 가끔 열어보는 서랍에는 작은 상자 하나와 메모 한 장이 있습니다. 그 상자 안에는 그토록 나를 괴롭혔던 일수 통장들이 있습니다. 일수 아저씨들이 찍은 도장들, 빼곡한 나의 메모들, 때때로 그 상자를 열어보며 그때의 상처들을 되새김질해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을 열심히 살고 있는지 질문 해봅니다.

작은 메모지에는 ‘항상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 살자!’라는 문구가 있고 그 밑에는 앞으로 제가 갚아야 할 빚의 목록들이 순서대로 적혀있습니다. 그리고 그 메모를 볼 때마다 떠올려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마운 얼굴들이 있습니다.

상처 범벅인 나를 따뜻하게 감싸 안아준 가족 같은 언니들, 너무너무 힘들었던 순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돈을 내어준 선생님, 그리고 그 고마운 얼굴 가운데 하나가 사회연대은행과 삼성생명입니다. 그런 도움의 손길들이 없었더라면 지금의 저는 이곳에 없겠지요.

고마운 마음, 감사의 마음이 작은 씨앗이 되어 어느 순간 제 속에서도 자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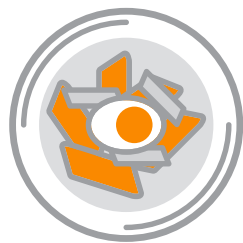
그 씨앗이 자라면 저도 머지않은 어느 날 누군가에게 기부천사가 되어 있겠지요.

기적처럼요.

행복한

소풍

글. 박영화



저는 대학생 남매를 둔 씩씩한 이혼녀입니다. 이혼 후 두 자녀와 살아가는 나날 속에서 세상이 내가 생각하고 뜻한 것과 다르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며 무언가 작은 끈이라도 붙잡고 싶은 절망감에 빠져 있을 때 찾아온 사회연대은행, 삼성생명. 별 기대 없이 지원했는데 뜻밖에 행운의 소식은 지금 생각해도 가슴 떨리는 감격이었습니다.

가게를 열고 이것저것 창업 준비를 하면서 설레던 하루하루. 드디어 가게에 '소풍'이라는 간판을 걸고 작은 분식집 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1년 동안 큰 숨 한 번 쉴 수 없을 만큼 바쁘고 힘들게 일하면서도 하루하루 눈에 띄게 달라지는 가게 매상과 늘어나는 단골손님으로 인해 더욱 힘을 낼 수 있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에 손을 데는 일은 비일비재했지만 제대로 병원도 못가 붓대를 칭칭 감고 일하고, 1시간, 2시간 자는 날도 허다했습니다. 어쩔 때는 주방에 주저앉아 소리 내어 울고 싶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일하며 남에게 돈 빌리러 가지 않고 아이들 등록금을 내손으로 만들어 부치고 오던 날은 나에 대한 대견함에 마음이 뭉클해지기까지 했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과 사회연대은행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쁘게 일하면서 땀 흘리며 얻는 기쁨과 또 지나간 상처들이 많이 씻겨 나갔고 아이들의 밝아진 모습에 행복할 때가 많습니다. 가끔은 내 가슴 한 켠에 남아있는 작은 아픔들이 문득문득 힘들게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나를 필요로 하는 가게가 있어 힘을 낼 수 있습니다.

영화같이 우연히 다가온 행운으로 인해 새 희망을 가질 수 있었고 나의 삶의 터닝 포인트가 되어 준 것처럼 어딘가에 빛도 없이 힘들게 사는 이에게 포기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나아가다 찾아온 나의 삶을 이야기하며 힘이 되어 주는 가정이 되고 싶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찾아온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앞으로도 계속 세상의 그늘진 곳을 찾아 또 다른 나에게 광명의 빛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삶의

밝은 빛

글. 천정숙



서른의 늦은 결혼. 결혼생활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갑작스런 뇌출혈로 결혼 7년 만에 남들이 말하는 과부가 되었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미어지고 시리고 아픈데도 눈물은 한 방울조차 흘러내리지 않았습니다. 너무 어이가 없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하필이면 왜 나일까'를 스스로에게 물어볼 뿐이었습니다.

공허한 마음 쓸쓸한 마음은 어디한 곳에 두지 못하고 미쳐버리고 싶고 죽고 싶은 심정이 들 때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에게는 꽃보다도 예쁜 다섯 살의 딸아이가 있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나의 운명이라면 부정하지도 도망치지도 않은 채 받아들이기로 결심하고 난 혼자가 아니고 둘이라는, 그리고 엄마라는 사실과 책임감속에 다시 일어서기로 했습니다.

힘든 하루하루가 시작되었습니다.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품 판매사원, 마사지 관리사, 보험설계사 등등...

세상은 그리 만만하지 않았고 사람에 지치고 몸도 지쳐가고 있을 즈음 신랑이 잠들어 있는 산사로 발길을 향했습니다. 힘이 들 때마다 남편이 있는 그곳에서 위안을 받고 싶었습니다. 나 힘들다고 너무너무 힘들다고 푸념을 늘어놓았습니다.

남편이 들은 것일까요? 나에게 큰 선물이 왔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절에서 자주 보던 지인이 열심히 사시는데 힘이 될 거라고 일러줬고 문을 두드리게 되었습니다.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아니 잠조차도 포기한 채 매달렸습니다.

나의 희망에.

가게를 오픈하던 그날 여태 울고 싶어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 닦아도 닦아도 쉴 새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가슴이 벅차 터질 것만 같았고 유치원에서 학원으로 동네 아주머니 댁으로 늦게까지 맡겨졌던 딸아이를 따뜻한 엄마의 품으로 맞아줄 수 있다는 벅찬 기쁨이 자꾸만 자꾸만 눈물 나게 했습니다.

10평 남짓 작지만 희망이, 그리고 행복이 싹트는 나의 일터!

수많은 사람들이 희망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 세상은 밝아질 것입니다. 힘들여 두드려라.

비추미의 밝은 빛은 당신의 상처 난 마음까지도 따뜻하게 밝혀줄 것입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욱 열심히 일해서 남에게 베풀 수 있는 빛으로 자리하겠습니다.

희망의 씨앗

글. 박상연



사업장에 방문하실 때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이라는 담당 RM님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좋습니다. 내가 이 사업장의 주인이라니 딸애의 핸드폰에 저장된 내 이름이 최근 바뀌게 되었습니다. 엄마에서 박사장님이라고. 몇 개월 전만 하더라도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었을 텐데...

아침에 눈을 뜨면 세상을 다 가진 것 같고, 활기차고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을 합니다. 한 평 반의 작은 가게지만 나의 꿈과 아이들의 꿈을 가진 희망가게인 제 사업장을 저는 제 나름대로의 명칭인 ‘희망의 씨앗’ 사업장이라고 부릅니다.

2년 전 손찌검이 잦은 남편과 이혼하고, 어떠한 경제적 도움 없이 아이들을 데리고 단칸 월세방에서 작은 꿈을 키우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힘든 생활이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하루빨리 안정된 생활을 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었습니다. 큰아들은 경제적 이유로 대학을 포기했지만, 작은 딸애만큼은 금전적 이유로 대학을 포기하게 하기 싫었습니다. 뒷바라지를 위해, 여성가장들이 할 수 있는 사업과 창업자금들을 알아보기 위해 강의를 들으러 여기저기 다니기 시작했고, 사회연대은행에서 나오신 강사님의 강의를 듣고,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업종에 대한 전문성 및 인성만 보고 지원을 해주는 만큼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친 후, 최종 면접 및 합격이라는, 제 생애 최고의 기쁨을 맛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세상을 다 얻은 듯, 이혼 후 처음으로 원가를 이루었다는 생각에 기쁨은 두 배가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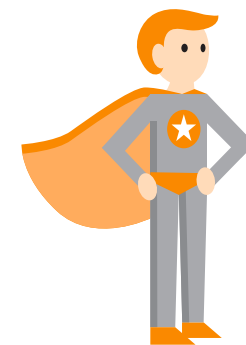
개업식을 진행할 때 제 담당인 사회연대은행의 손지환 팀장님 외 삼성생명 관계자분들이 여러분 오셔서 축하해주셨습니다.

항상 누군가의 주변인이었고, 중심에서 벗어나 있던 저를 내 인생의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신 여러 관계자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힘들게 얻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사회 구성원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두 아이의 엄마로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현 사업장을 최고의 의류 매장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어렵게 시작하는 업체 대표들한테 약소하나마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원업체 대표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 번 이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쓰시는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도와줘요, 슈퍼맨!

글. 서윤덕



아무 근심 걱정 없이 잘 웃는 해맑은 아이였습니다.

교정에서 마주치던 친구들은 아주 오랜만에 만나는 이처럼 자기를 반겨주는 게 기분 좋았던 수다쟁이 여고생이었습니다. 길을 걷다가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 사람에게는 먼저 인사를 건네고 제 소개를 하고 다음엔 이름도 잊지 않겠노라고 약속을 나누었던 대학생이었습니다.

봄비 내린 다음날 가로수 나무껍질을 뚫고 나온 연둣빛 새싹이 너무 예쁘다며 감탄하다가 ‘참 철없는 언니’라는 사촌동생의 핀잔을 듣던 어린 주부였습니다.

새벽 4시쯤 기차역에 도착했습니다. 금요일 밤 퇴근 후 마지막 열차를 타고 아들을 만나러 가는 길입니다. 기차역에서 5분 거리에 있는 버스터미널에는 시골집으로 가는 첫 차가 6시에 있다는 시간표가 텅 빈 대합실 앞에서 깜빡입니다. 참 다행입니다. 조용한 대합실 의자에 앉아서 2시간만 눈을 붙이면 첫 차를 탈 수 있으니까요. 밝고 해맑게 딸을 잘 키워주신 어머니는 딸이 직장을 잃고 빚더미에 앉게 되어 고시원으로 몸을 피하자 어린 손자를 맡아 키우시며 홀로 시골집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냐며 부모보다 더 아이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외할머니가 데리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만 하십니다.

2002년 2월 28일 안정된 직장을 잃고 과중채무로 인해 신용불량자라는 이름표를 달게 된 그 날로부터 10년을 그렇게 자신을 채찍질하며 달려 왔습니다. 드디어 개인회생을 통해 신용을 회복하고 드디어 재기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분명 쾌거였습니다. 그러나 은행의 반응은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명예로운 사업체 하나 키우고 싶은 소중한 꿈을 이루기엔 경제적 장애는 너무 큰 것이었습니다.

짜잔!

이쯤에서 제 앞에 슈퍼맨이 나타났겠지요? 사회연대은행을 통해 창업지원 소식을 접했습니다. 단비 같은 소식에 밤잠을 설치며 창업을 준비하는 시간은 연애를 하는 것보다 설레고 행복했습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창업지원 프로그램과 삼성생명이 준비해주신 영예로운 개업식으로 저의 수학전문학원은 드디어 세상에 모습을 선보이게 되었답니다.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제가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느꼈던 지난 시간이 과연 무엇이었는지를 넘지 못할 장애물인 줄 알았는데 지나와서 보니 숙제였었나 봅니다. 꼭 할 수 있는, 반드시 해 내야만 실력이 자라는 숙제였지요. 저의 숙제 도우미- 사회연대은행과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학원 운영에 조언과 도움을 주실 것을 알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전진하겠습니다.

사랑을 전파하는 삶

글. 장윤주



10여년을 한부모 가정으로 살면서 고단했던 내 인생에 따사로운 햇살처럼 예기치 않은 곳에서 기회가 찾아 왔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합니다. 그래서 보육교사로 어린이집에서 6년여를 근무했고, 원 운영의 큰 꿈을 안고 부족한 사업자금을 충당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 저기 문을 두드렸습니다. 생각보다 쉽지는 않았습니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창업을 한다는데 선뜻 자금을 빌려주겠다는 곳은 없었습니다. 생각보다 현실의 벽은 높기만 했습니다.

그때 저는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됐고 필요서류를 꼼꼼히 준비하여 핑크리본으로 정성스럽게 장식하여 사회연대은행에 보냈습니다.

숨죽이며 몇 날을 기다린 저는 합격이라는 기쁜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삶은 노력하고 두드리는 자에게 꼭 보답을 한다는 명언을 가슴에 품고 여성가장 창업지원금과 주변의 도움으로 꿈에 그리던 어린이집 원장이 되었습니다. 비록 시작은 크지 않으나 큰 꿈을 안고 새롭게 시작한 저는, 건강한 먹거리와 행복한 웃음이 끊이지 않는 어린이집을 만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원아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제 온정성과 사랑을 쏟고 있습니다.

점점 이웃에게 소문도 나고 아이들의 웃음 짓는 모습을 보면서 감사의 마음을 갖곤 합니다. 시작은 정말 미비했지만 지금은 원아들도 많아지고, 점점 운영이 안정되어 가는 모습을 보며 절로 신바람이 납니다.

제가 뿌린 사랑의 씨앗이 곳곳에 전달되어 우리나라 유아교육에 작은 밑거름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저의 아들을 사랑으로 키웠듯이 우리 원의 아이들도 사랑으로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자라나 또 다른 사랑을 나누어 가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아울러 더불어 사는 삶의 큰 교훈을 되새기며 세상엔 마음이 따뜻한 사람들이 아직은 많이 있고 삶을 힘들고 고단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산을 빌려주는 사랑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한 세상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위해서 우산을 빌려주고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행복을 꿈꾸며

글. 김선경



세월을 거슬러 뒤돌아보니 벌써 여성가장으로 두 아이를 키우며 살아온 세월이 15년이 되었습니다.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들과 딸을 보니 세월이 너무 빨리 흘렀구나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 아이 세 살 때 사업의 실패로 가정의 위기가 찾아와, 그 후로 두 아이를 키우며 어떻게든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주어진 일을 무엇이든 해야만 했습니다.

자활에서 일을 하면서도 시간 나는 대로 아르바이트를 했고, 나중에 나에게도 기회라는 기적이 찾아오면 꼭 잡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이것저것 여러 가지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꼬마김밥 전문점에서 일을 하게 되었는데, 저의 역량에 잘 맞는 일이었고, 작은 꼬마 김밥 가게를 하고 싶다는 꿈을 조금씩 꾸게 되었습니다.

작은 꿈을 꾸며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있는 저에게 불과 몇 개월 전, 복지관에서 문자가 왔습니다. 창업교육이 있으니 참여해 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창업에 대해 궁금함이 있던 차에 교육을 받게 되었고, 교육을 받던 중에 강사 선생님께서 사회연대은행의 여성가장을 위한 지원사업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정말 저에게도 작은 빛줄기가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에 계신 분들의 은혜를 잊지 않고 열심히 살아 보겠습니다. 저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과 기회를 잘 만들고 가꾸어서 저를 응원해주시는 분들의 기대에 보답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저의 큰 아이가 국가대표 축구선수를 꿈꾸며 달리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축구가 너무 하고 싶다고 했는데, 형편이 너무 어려워 도저히 지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5학년 수업시간에 꿈을 적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날 집에 오더니 저의 아들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무엇이 되었으면 좋겠어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야기 했죠. 우리 권수가 제일 하고 싶은 것을 했으면 좋겠다고요. 저의 아들이 하는 말이 “엄마 저는 축구가 정말 하고 싶어요.” 그 말을 듣는데 마음이 무너지며, 찢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이 손을 잡고 구룡초등학교 축구부에 입단시켜 축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축구를 할 때가 너무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주위의 도움으로 지금까지 축구를 할 수 있었고, 얼마 전엔 독일에 계신 선교사님과 연결이 되어서 독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꿈을 이루어 가는 것을 보면서, 엄마로써 씩씩하게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합니다. 저에게 작은 빛줄기가 이제는 꼬마김밥전문점 창업으로 연결되어 저 역시도 꿈을 실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행복한 꿈을 이뤄갈 수 있도록 부끄럽지 않는 사회의 일원으로 서겠습니다.

다시 한 번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과 사회연대은행에 계신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며, 저와 제 아들의 꿈을 끝까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더 멋진 일들을 만들어 내겠습니다.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

글. 권성화

스무 살, 어른이 되었다는 희열을 느끼기도 전에 저는 엄마가 되었습니다. 단란한 가정을 꾸리며 살 것이라 생각했지만, 두 아이와 함께 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두고 하는 직장 생활이 말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했고, 어린 제 나이가 걸림돌이 되기도 했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니 장사밖에 없었습니다. 액세서리를 만들어 팔기도 하고, 도매시장에서 옷을 떼다가 팔기도 했습니다. 그마저도 여의치 않을 때는 낮에는 아르바이트를, 새벽에는 대리운전 콜센터에서 일하기도 했습니다. 밑천이 없는 저는 늘 한계에 부딪히곤 했습니다. 쪼들리는 생활에 늘 지쳐있던 제게 내 가게를 갖는 것은 꿈이자 희망이었습니다.

혼자 두 아이를 책임져야하는 가장이 되면서 제일 처음 배웠던 네일아트를 제대로 해보기 위해서 샵에서도 일하고, 네일 재료 제조업체에서 일하며 경력을 쌓았습니다. 오픈만 하면 뒤편 다 해낼 수 있을 것 같아 네일샵을 창업했지만 여러 가지로 힘든 시기들과 겹치며 실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무엇도 하고 싶지 않았고, 무엇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실패란 그렇게 나를 옥죄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날은 종일 침대에 누워 눈만 껌뻍이며 지금 숨 쉬고 있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도 했습니다. 살아야 하는데,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빨리 정신을 차려야 하는데 생각처럼 툭 털고 일어나기란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런 제가 다시 희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며 삶을 계획할 수 있도록 해준 것은 꽃이었습니다. 처음엔 당장 현금을 벌어보자는 생각에 졸업식에 꽃을 포장하여 들고 나갔습니다. 무모한 도전 같았지만, 생계가 달린 일이니 악착같이 억척스럽게 했습니다. 꽃시장에서 재료 사오고 밤새 준비해 추운 날 새벽에 학교 앞에 나가 판매하기를 반복……. 몸은 힘들어 죽어날 것 같았지만, 내 손에 쥐어진 현금에 피곤함은 대수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그렇게 꽃은 죽어있던 나를 다시 움직이게 해주었습니다.

생화, 조화, 드라이플라워, 프리저브드플라워... 종류와 상관없이 꽃으로 만들 수 있는 것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플리마켓에 들고나가 팔기도 하고, 시즌에 맞는 다양한 이벤트 상품을 만들어 백화점 행사에 나가기도 하였습니다. 돈을 벌기 위함이기도 했지만, 꽃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너무 좋았습니다. 작은 잎 하나, 가지 한 줄기까지 함부로 할 수 없었고, 다 저마다 가치가 있고 그들의 자리가 있습니다. 내 손길이 닿은 꽃들이 누군가에게 기쁨의 선물이 되고,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가 되어 행복을 선사하는 것만큼 나를 흥분시키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꽃의 매력에 빠지며 저는 제가 제일 잘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작업하여 플리마켓이나 행사에서 판매를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상품이 든 캐리어와 판매 테이블을 들고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거나, 백화점 행사에 진열할 물건을 채우기 위해 며칠씩 밤샘 작업을 하는 일이 처음처럼 신이 나지 않았습니다. 몸이 힘들어져 초심을 잃기도 했지만, 내 기지가 없으니 이 모든 노력들이 쌓이지 않는 것만 같았습니다. 브랜드 네임을 아무리 홍보해도, 사람들은 공방이 없는 내 작품들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는 내가 공방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였습니다.

혹시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을까 알아보다 사회연대은행을,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꼭 선정되기를 바랐지만, 되기 어렵다는 생각이 더욱 컸기에 준비를 열심히 했습니다. 서류를 작성하며 내 삶을 되돌아보게 되었고, 창업에 대한 의지를 다시 한 번 더 다졌습니다. 1차 통과 문자를 받았을 때 그 떨림은 최종 합격 때 만큼이나 기뻐했습니다. 심사 발표를 기다리던 7월은 한 여름 무더위보다 발표 긴장감이 더욱 기억에 남을 정도입니다. 최종 선정되었다는 연락을 받고 기쁨과 감사함에 입을 틀어막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긴장하며 기다렸던 그 시간들조차도 너무 감사했습니다.

단지 창업을 할 수 있게 되어서가 아니라, 제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 기회이기도 하기에 더욱 소중하고 감사했습니다. 지난 과거의 사업 실패로 더욱 신중하고 조심스럽지만, 그 실패가 밑거름이 되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되었다는 걸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위로를

건네는

카페지기를

꿈꾸며

글. 권인영

사회연대은행의 서류통과 문자를 받았을 때만 해도 ‘정말로 된 건가?’라며 실감이 나지 않았었습니다. 거기다 실사를 나오셔서 질문을 하는데도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지 몰라, 안이하게 준비한 것 같은 인상을 준 건 아닌지 노심 초사하며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나의 간절함을 전달도 못하나 자책하면서…….

정말 간절하게 원했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바리스타 자격증반을 수강하여 2급을 따고 조금은 어렵다는 1급까지 취득, 카페 일을 배우고 알바를 했습니다. 직장이라고는 사무직에, IMF 이후에는 프리랜서로 일하던, 장사의 ‘장’ 자도 모르던 내가 어찌 이렇게 커피 쪽 일을 시작했는지 참 회한하기도 하지만 몸을 움직이는 일 속에서 정신은 맑아지는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세상으로 내몰린 후 가장 역할을 위해 쉽 없이 일해 왔습니다. 지치고 힘들지만 무언가를 끊임없이 하며 그래도 한걸음 한걸음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새로운 나에 대한 발견과 더불어 세상을 보는 시야의 폭이 넓어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나를 사람들이 써 줄 것인가라는 생각엔 참 부정적이었습니다. 노후를 대비할 만큼 안정적이지 않고 지금 창업을 하지 못하면 더더욱 힘들어질 것이며, 나이 들어서도 알바 거리를 찾느라 시간을 소비하고 근근이 어렵게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이대로는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좋겠지만 내 밥벌이 할 만큼의 작은 카페 하나 꾸려가고 싶은 생각이 계속됐습니다. 그 때부터 꾸준히 정보를 수집하며 여성가장 창업이란 키워드를 찍고 이리 저리 웹서핑을 하다가 우연히 사회연대은행이란 곳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창업지원사업을 알고 ‘궁하면 통하는구나, 바로 이거다’ 싶었습니다. 수시로 홈페이지에 들어가 공모가 뜨기만을 기다렸으나 시기를 놓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공모를 본 순간 왠지 모르게 희망의 느낌이 들었습니다. 조용하고 차분한 마음으로 서류를 접수하고, 최종면접 때도 나름 피피티를 준비하며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답변했습니다. 그래도 면접관들 보시기엔 구멍이 보였을 텐데 나의 진심이 통한 것인지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린 끝에 최종합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내게도 이런 순간이 오다니……. 아무리 카페를 열고 싶어도 나는 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안타까웠던 지난 날이 떠올라 그래도 그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고 스스로 위로하며, 감사의 순간을 맞았습니다. 나처럼 창업을 꿈꾸는 인연들도 만나고, 워크숍 또한 알차으며 기술전수교육을 통해 수제

비누를 만드는 것도 즐거웠습니다. 혼자여서 힘들었던 내게 든든한 지원자가 생긴 느낌이라까, 이렇게 갱생(?)의 기쁨을 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에 진심으로 감사함을 전하고 싶습니다. 멀리까지 실사를 오신 선생님부터 워크숍과 교육을 준비해주신 모든 선생님의 손길에 감사함을 전합니다.

나의 공간이 쥐구멍이라고 했다면 지나친 비약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나간 내 삶을 일일이 말할 수 없으나 내 정서의 공간은 쥐구멍과도 같았습니다. 세상이 무서워 나오지도 못했던 바로 그 곳에 한줄기 빛이 내려온 느낌입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접고 새롭게 시작할 때가 왔습니다. 그동안 알바로 카페 일을 했었지만 창업절차와 경영마인드에 대해 배우고 싶었던 내게 인턴 활동을 할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로스터리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 카페를 방문하고 그곳에서 창업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배울 것입니다.

카페창업이 아니면 안 된다는 비장함을 가지고, 그렇다고 해서 거창하게 돈을 많이 벌겠다는 허황된 생각이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 일할 곳이 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고 싶습니다.

아메리카노를 주변보다 저렴하게 판매하여 맛과 편안함으로 입소문을 내고 핸드드립 등 집에서 즐길 수 있는 커피추출법에 대한 홈카페 바리스타 수업도 열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수입이 자리 잡는다면 동네사랑방으로서 핸드메이드 원데이 클래스 등으로 커뮤니티 공간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거기서 만들어진 것도 판매를 할 수 있는 샵인샵 개념의 작은 코너를 만들어 다양하게 즐길 거리를 카페 안에서 제공한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을 모으고 문화를 나눌 수 있는 카페, 사람들과 인연을 벌고 추억을 쌓아가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이러한 꿈은 아직은 먼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3년 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줌마였습니다. 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늘 무언가를 하고 있었고, 버티는 삶이었지만 그 시간이 자양분이 되어 오늘의 나를 있게 했습니다.

머지않아 나의 작은 공간에서 커피 한 잔으로 위로를 건네는 소박한 주인장이 될 날을 기다리며, 오늘도 나는 감사한 마음으로 커피를 내리고 있습니다.



기적, 내 이름의 가게

글. 김보영

아이가 6개월 되었을 때부터 혼자 키우며 일을 했습니다. 그 아이가 어느새 고3이 되어 곧 성인이 되니 세월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힘들었고, 아들에게 엄마로서 해준 것이 너무 없다는 자괴감도 컸습니다. 겨우 밥 굶지 않고 살아온 것이 다행인 것일까. 그러나 앞이 너무 캄캄해서 정말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나날이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어려운 생활에서도 아들이 몸과 마음 모두 건강하게 자라준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40대 후반을 넘어서고 있고 곧 50이 될 텐데 이려다간 늙어서 아들에게 짐만 되는 부모가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길을 가다가 폐지 줍는 할머니가 예사로 보이지 않기도 했죠.

1년 전 반포 언니가 남대문에 매장을 추가로 오픈 하면서 ‘나중에 네가 해도 되고...’ 라는 말을 할 때도 정말 지나가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과연 나한테 그런 기회가 올까 싶기도 했지요. 언젠가는 내 매장을 해야지 막연하게 생각은 했지만 정말 희망사항일 뿐이었습니다. 남대문 매장과 반포 매장에서 일하고 몇 군데에 제품을 공급하는 일을 하면서 물류를 알아가고 나만의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그 사이 크게 또는 작게 손해를 보고 폐업을 하는 지인들도 있었고 참 어려운 상황인 것만은 틀림없었습니다.

폐점하는 매장들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은 임대료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습니다. 매출도 매출이지만 업종의 특성상 자리도 중요하다보니 대체로 임대료가 높은 편이었습니다. 경기가 어려워 매출도 나빠지는데 임대료 부담이 커서 유지가 안 되니 결국 문을 닫게 되는 매장들이 꽤 많았습니다. 남대문시장은 생각보다 임대료가 비싸지는 않아서 크게 어려움이 없었고, 1년 동안 운영하면서 노하우도 쌓았습니다.

작년 봄 반포 매장의 매출이 많이 떨어져서 걱정을 하며 여러 방향을 생각하던 중 평소 비누, 화장품 등 DIY를 좋아하고 디퓨저 재료 매장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보고 있던 중 그동안 플라워스틱만 판매하던 것을 확대해서 처음엔 베이스만, 그러다가 향오일까지 확대해서 판매를 제안했고, 성과가 좋았습니다.

직접 운영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참여를 하면서 느낀 것은 항상 새로운 것을 찾아야 하며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 거기에는 반드시 시장의 흐름과 고객들의 니즈 및 트렌드를 재빨리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점점 나만의 것을 하고 싶다는 욕구는 커져가고 있었는데 자금이 없어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은행 대출도 어려웠고 압당한 상황이었는데 정말 우연하게 사회연대은행을 알게 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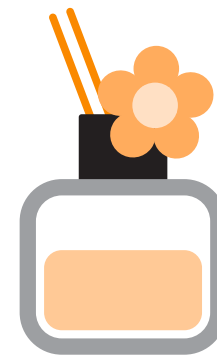
진행하고 있는 여러 사업 중 눈에 들어온 건 ‘여성가장 창업지원’ 나에게 딱 맞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다음날이 마감이었습니다. 준비해야 할 서류도 많았고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뭘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5시에 퇴근하고 바로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받아주신 남자 직원께서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직접 방문 접수해도 된다면서도 다음날까지 마감이라 걱정을 하셨습니다. 집에 와서 밤새 신청서를 작성했고, 다음날 분주하게 서류를 준비해 사무실로 직접 가서 제출을 했습니다. 하루 만에 준비하느라 정말 바쁘게 움직였지만 접수가 잘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서야 안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기다리다가 서류통과 소식을 듣고 현장 실사가 끝나고 나서는 무척 떨리는 마음으로 초조했습니다. 기대 반 포기 반의 심정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을 즈음에 드디어 최종 면접. 그 날은 정말 심장이 튀어 나오는 줄 알았지요. 너무 떨려서 청심환이라도 먹고 올 것을 후회했습니다.

드디어 선정되었다는 문자를 받은 날은 세상을 다 얻은 듯 했습니다. 평생 참 운이 없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어디서도 당첨 한 번 된 적이 없었는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된, 내가 꾸며 나갈 수 있는 사업장이 생겼습니다. 결혼 후 힘들기만 했던 19년의 세월이 이제 변화를 하려나 봅니다. 이제 기존의 제품으로 꾸미는데 그치지 않고 나만의 상품을 기획하고 제작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 주어 졌다는 것이, 희망이 생겼다는 것이 눈물 나게 기쁩니다.

이런 기회를 갖게 해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에 정말 감사합니다. 저 처럼 홀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자립의 꿈을 주셔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소중하고

감사한

나의

작은 일터

글. 김정숙

여성가장이 되어 한 가정을 책임지고 나의 소중한 아이를 지켜 내야 한다는 각오 하나로 앞만 보고 달려왔던 지난 시간들이 마치 영화 속 장면들처럼 하나씩 떠오를 때마다 마음 한편이 조용히 아려옵니다. 그 시간들 속에는 참 많이 힘겨웠던 시간. 많이 외로웠던 시간.

혼자서는 감당하기 버거웠던 삶의 무게에 넘어져도 엄마라는 이름으로 또 다시 곳곳하게 힘을 내어 일어서야했던 순간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항상 밝고 바르게 성장해주는 아이는 삶의 보람이며,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낼 수 있는 가장 큰 이유이며 에너지가 됩니다. 여성가장으로 살아온 지난 시간들을 돌이켜보니 누구에게 도움을 청할 수도 도움을 받을 수도 없었던 막막했던 순간들이었는데, 그래도 그때마다 힘이 되어준 가족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 희망을 주려고 애쓰는 그 모습에 힘을 내고 헤쳐 나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가장 큰 어려움은 역시 경제적인 문제였습니다.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해 나가기에 저축은 그저 꿈일 뿐. 한 달 벌어 한 달을 살아내야 했던 눈앞의 현실은 가혹했고 차갑기만 했습니다.

신용을 관리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은행권의 벽은 두텁기만 했고, 급히 필요 할 때에도 그 문은 좀처럼 열리지 않았기에 막막했던 때가 한 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도움을 받고 그것도 여의치 않을 때에는 어쩔 수 없이 사금융에서 융통해야 했습니다. 눈덩이같이 불어나는 이자에 몇 백만 원을 빌리고 모두 상환하는데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어려운 사람들은 계속 어려울 수밖에 없는 사회적 구조가 원망스럽기도 했지만, 능력이 부족한 제 자신 외에 누굴 탓 할 수 있었을까요.

아침부터 밤까지 열심히 일하고 휴일 아르바이트까지 하면서 아이 학비와 생활비를 메워 나갔습니다. 작게라도 내 가게를 열어 쉴 때 쉬면서 가정도 돌보고 싶다는 꿈이 있었지만 기대일 뿐이었습니다. 생활하기도 벅찬 상황에 넉넉하게 돈을 모아 창업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피부관리사 일을 오랫동안 해왔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이나 현장에서의 경험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으나 자금적인 여력이 부족하여 창업을 꿈으로만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대로 쉬지 못하고 지속해서 일을 해온 탓에 몸에 무리가 왔습니다. 건강한 체력 하나로 버텼지만, 몸에서 보내는 신호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고, 병원에서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고 했지만 손을 놓고 편히 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기에 쉬면서도 여러 가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기운을 차리고 다시 일을 시작해야 했던 상황이었지만 직장의 과다한 업무를 소화해내기에는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결국 개인 시간을 어느 정도 조율 할 수 있고 그동안 쌓은 경험을 바탕으로 운영할 수 있는 나의 일터를 작게나마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창업 자금이나 운영자금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라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우선 급한 대로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 가게를 계약하고 무조건 문을 열었지만 임시로 빌린 돈이라 걱정은 태산이었습니다.

여러 곳을 쫓아다니며 대출을 알아보았으나 방법이 없었고 실의에 빠져 있을 때, 정말 우연하게도 사회연대은행의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알게 되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지원하였습니다. 1차 서류지원부터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심사까지 너무나 간절했기에 많이 떨리기도 했지만 진실 된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종 합격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던지 그 감사한 마음을 무엇으로 표현 할 수 있을까요. 순간 혼자가 아니라는, 세상 어딘가에는 손을 잡아줄 누군가가 있다고 느껴졌던 그 따뜻함이 저에게 살아갈 수 있는 또 하나의 새로운 의지와 용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심사

기간 동안 만나 뵈었던 여러 관계자분들의 진심어린 관심과 사랑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을 통해 다른 여성가장분들과 함께 모인 자리에서 이 소중한 기금이 어떤 과정으로 마련된 것인지, 얼마나 귀한 정성과 바람이 담겨있는 것인지 정확히 알게 되었고, 어떻게든 잘 운영하여 소중한 취지에 보답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이 일터를 잘 이끌어서 저와 같은 여성가장들에게 따뜻하고 배려있는 일터를 마련해드리고 싶은 꿈이 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이 작은 배가 앞으로 어떤 바다를 향해 할 지 알 수 없지만 희망으로 가득한 이 배가 반드시 목표했던 그곳에 다다를 수 있도록 힘차게 노 저어 나가겠습니다.

함께 염려해주시고 여러 가지로 힘을 실어주시는 사회연대은행의 모든 분들. 그리고 열심히 일하시면서 정성스럽게 기금을 마련해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의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뛰어라!

열려라!

시바의

여왕

글. 안인선



서울대 1번 출구 사로수길을 생각하고 창업계획서를 썼던 지난 여름. 참으로 꿈만 같은 날입니다. 낮에는 심사 준비를 하고 밤에는 분식집 주방알바를 하면서 몇날 며칠을 가슴 설레고 마음도 조이고... 오래전부터 꿈꾸던 창업은 녹녹치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도박에 빠진 남편과 사회적인 편견 때문에 어려움에 빠질수록 이 세상에 유일한 피붙이인 아들이 있어 어쩌면 용기를 잃지 않고 차분히 한발 한발 준비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1년 전부터 선인장 카페를 사업 아이템으로 결정하고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연구 조사와 입지 공부를 하고 투자자를 만나려고 노력 했으나 쉽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실망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봉천자활센터에서 저의 창업계획에 귀 기울여 주면서 본격적으로 창업에 대한 희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전부터 여성가장을 위한 창업지원 프로그램이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사실 어떻게 문을 두드려야 하는지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보는 정도였는데, 이번 사업 참여를 통해 이 사업이 저소득 여성가장에게 얼마나 큰 희망이 되는지 다시 한 번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서를 쓰는 일은 40대 후반의 제게는 참으로 어려운 작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시 배우고 익히는 과정이라 생각하면서, 2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졌던 생각과 경험을 최대한 녹아 내리고 애쓰면서 아이디어를 썼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사업계획서가 완성되어 서류를 접수하던 날 아침, 엄마가 안치 되어 있는 벽제 납골당에서 접수서류를 앞에 두고 술 한 잔 드리면서 꼭 통과하게 해달라고 기도 하고 왔습니다. 정말 누구보다도 간절했습니다.

마침내 1차 서류 통과. 정말 뭘 듯이 기뻐했습니다. 2차 현장심사, 3차 최종면접심사 까지 가슴 떨리는 심사과정을 모두 마치고 들려온 합격의 소식! 행복은 동시에 오는 것인지 밤낮으로 일하는 나를 봐서 그런 건지 재수학원에 다니는 아들도 성적도 많이 오르고 엄마인 나를 무척 대단하게 생각해주었습니다. 세상 살맛이 났습니다.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절망에 빠져 우울하던 48세 여자는 어느새 세상 사람이 다 내 친구인 듯 모든 마음이 열리고 기뻐했습니다. 심사 통과 때 마다 사회연대은행에서 보내준 문자에 안인선 대표라는 글자에 참 마음이 먹먹해지면서 감사의 눈물이 났습니다.

살면서 내가 인맥이 없고 뺨이 없다고 아쉽다고 한 적은 없지만, 이제 든든한 친정 집이 생긴 듯 든든합니다. 이제부터 시작이니 앞으로 컨설팅도 받고 더욱 도움 받을 일이 생길 것이라 생각하니 기분이 좋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할 수 있으니 창업 하면 꼭 관계자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 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사업에 마지막 주자로 합류할 수 있게 된 것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꼭 창업에 성공하여 좋은 선례가 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나의

자랑,

나의

꿈

글. 한소영



누구에게나 꿈이 있습니다. 하고 싶다거나 갖고 싶다거나 이루고 싶은 꿈이 있겠죠. 그러나 상황이 안 되거나 현실의 벽에 부딪히거나 노력을 안했거나... 이루지 못한 꿈만큼 안 되는 이유도 여러 가지 있겠죠.

어린 시절부터 가난했고, 살아가면서 가난했고, 지금도 가난하지만, 저도 늘 꿈이 있었습니다. 모든 꿈을 이루지 못했고, 이루지 못한 여러 가지 희망사항이 아직도 진행 중입니다.

오늘은 하나, 드디어 이루어진 꿈에 대해서 자랑해볼까 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남 밑에서 일을 하면서 내 가게를 꿈꾸었습니다. 가난했기 때문에 자식을 부유한 환경에서 잘 키우고 싶고, 병들고 아프신 엄마를 잘 보살피고도 싶은 맘이었습니다. 누구나 부유해지고 싶은 이유가 있는 것처럼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혼자인 여자에게, 신용도가 없는 여자에게, 빛만 있는 여자에게 은행에서 기회를 주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회연대은행에 문을 두드렸기에 1차 서류심사가 통과했다는 문자를 받고 눈물이 났습니다. 2차 현장방문 때에도 얼마나 떨리던지요. 내심 침착하게 설명드리고 내가 가진 기술을 보여드리고, 어필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머리는 하얗게 몽글몽글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래도 눈 마주치면서 얘기 들어주고, 질문에 곤란해 할까 배려하시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곁들인 질문을 하시고는 '고생하셨네요요' 하면서 얘기를 들어주시던 사회연대은행의 선생님들 눈빛은 잊을 수 없어요.

새벽기차타고 3차 면접 보던 날은 엄청 많이 울었습니다. 원지는 몰라도 벅차고, 떨렸던 것 같습니다. '통과 하셨습니다' 문자를 받고 한참은 멍하게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꿈인가? 내가 내 가게를 오픈 할 수 있나? 진짜?

지금은 제가 대표입니다. 제 이름의 통장에 입금이 되고, 사업자에 내 이름이 낯설게 적혀 있습니다. 저는 이제 작은 애견센터의 대표가 되어 안 죽을 만큼 노력하고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내손을 잡고 믿어준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사회연대은행에 저도 언젠가는 도와야 겠다는, 이제는 또 하나의 큰 꿈이 생겼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도시락!

희망의

도시락!

글. 이주현

시간선택제로 입사한 삼성물산에서 계약만료를 한 달 앞둔 5월 중순경,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우선 고용노동부를 통해 이력서를 올리고, 여러 취업 사이트를 찾아서 이력서를 보냈습니다. 중장년 취업 박람회도 열심히 찾아다녔습니다. 갈 만한 직장이 있는지 매일매일 열심히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도 연락이 오는 곳이 없어 너무도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었습니다. 아이들을 공부시키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소득이 없어진다는 불안감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퇴직하는 날까지 찾아보기로 했지만 직장에 갈 수 있다는 희망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육아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직장생활을 그만 뒀다가 다시 시작한 시간선택제 덕분에 나 자신을 찾고 행복했었는데 또 다시 그만뒀야 하는 것에 섭섭함과 속상함은 이루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들은 나를 믿고 꿈을 키우며 열심히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기에 창업으로 돌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창업은 쉽지 않은 결정이었습니다. 1인 가구나 노년층의 증가로 도시락 시장이 뜨고 있기에 도시락 업종을 선택하고 스스로 창업이나 프랜차이즈냐로 고민했습니다.

본사에서 효율적인 운영시스템으로 조리된 원팩 제품을 공급해 전문 인력 없이 누구나 쉽게 운영 가능한 프랜차이즈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지인들을 통하고 금융권 대출을 통해서도 창업 비용이 모자랐습니다. 창업 자금 대출을 위해서 이리저리 검색하다가 사회연대은행의 여성가장 창업 지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창업 지원 조건에 해당함에 눈물이 마구 흘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라는 말을 실감했습니다. 너무 늦게 알게 되어 서류 제출 마감까지 시간 여유가 없었습니다. 우선 필요한 서류를 떼고 필요한 양식을 채워 우편접수를 했습니다.

창업으로 선택한 토마토 도시락은 대학가를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메뉴를 선보여 젊은 층에게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가계약 상태에서 2주가 지나 1차 서류 심사에 통과했음을 통보받고 무척 기쁩니다. 이후 실사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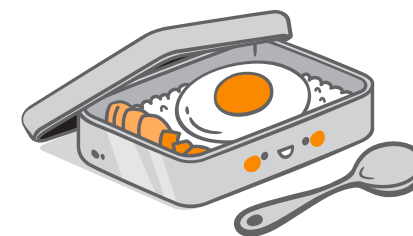
나오신다고 하니 다소 떨렸습니다. 하지만 상권이 그리 나쁘지 않다는 확신이 있었기에 실사를 나오신 위원님께 창업아이템과 시장 조건에 대하여 열심히 설명 드렸습니다. 이후 점포 계약을 했고 면접까지의 시간은 꽤 걸렸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교육이 절차대로 진행되었고 인테리어도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완전히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여서 불안한 마음이 계속 있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면접에 임했고, 마지막 결과를 알려왔을 때 너무도 기쁘고 행복했습니다.

적지 않은 창업지원금을 3년간 무상으로 지원해 준다는 것에 무척 감사합니다. 이 사업이 10년간 이어왔음을 알게 되었고 올해가 마지막 사업으로 내가 그 마지막 수혜자가 된 것을 큰 행운으로 생각합니다.

나와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할 때 믿을 수 있는 곳에서 이처럼 좋은 조건으로 좋은 프로그램을 또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집니다.

저는 프랜차이즈 가맹점으로 시작했기에 우선 본사와 협력하여 다양한 판매 및 고객관리 시스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외식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품질(Quality), 청결(Cleanliness), 서비스(Service)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창한 계획보다는 초기 매장 운영은 QCS에 집중할 것이며, QCS를 통해서 점포 매출을 안정화 시킨 후 원활하게 매장이 자리 잡으면 적극적인 광고 홍보를 통해서 인근 단체 및 배달 매출에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일 매출액을 70만원까지 올리는 것을 내년까지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매출에 집착하기 보단 조금 늦어도 초심을 잃지 않고 오래 가는 토마토 도시락 매장을 만들 것이며 무엇보다 딸 가진 엄마로서 내 자식들에게 밥 한 끼 먹인다는 ‘엄마의 마음’으로 진심을 갖고 사업을 운영할 것입니다.



단비

같은

소중함

글. 한영실

내게 여성가장 창업지원은 단비와도 같았습니다. 처음 신청부터 최종 선정까지 내게는 잠 못 이루는 날들의 연속이었습니다. 포기와 희망을 수없이 반복했던 3개월의 여정은 기다림의 미덕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 신청서를 작성했던 마음으로 돌아가 보니 작성하면서 순간순간 마음이 울컥했던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참 열심히 살았는데 결과가 제 자리구나’ 라는 한숨과 날 위로해 주고 싶지만 위로해 줄 도구도 물질도 친구도 없었던 내 자신에게 눈물이 났었습니다. 잊혀졌던 10년 세월을 거슬러 짊어가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 내려가자니 많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동안 나를 뒤돌아보는 기회와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먹고 살기 바쁘다는 이유로 여유와 사치는 맘 놓고 부릴 수 없었습니다. 나의 아픔을 누군가 알아주고 위로해 주기 바라는 마음으로 사연을 적었던 것 같습니다.

최종 선정 문자를 받았을 때의 기분은 심장의 두근거림 보다 한 단계 더 높은 떨림이랄까, 두근도 아니고 진동처럼 느껴졌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하고 가족들에게 알리고 그래도 흥분이 가시지 않아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마지막을 기다려 최종의 순간을 통과한 느낌은 이런 거구나, 이런 기회가 나에게도 주어지는구나’ 벅참은 한 동안 계속됐습니다. 2,000만원 자체는 누구에게는 적은 돈, 또 누구에게는 그저 그런 돈, 또 누구에게는 기억하지도 못하는 돈일 수 있지만 내게는

숨과 같은 돈입니다. 그만큼 꼭 필요한 돈이고 내 삶을 촉촉하게 적셔 줄 단비 같은 지원금이었습니다.

방문요양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동차와 컴퓨터 구입을 비롯해 여러 가지 행복한 고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을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을까, 센터에 정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는 이 순간이 기쁩니다. 고민이 기쁠 수 있다는 새로운 느낌. 정말 행복합니다. 의미 있는 지원금을 소중하게 사용해야 주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흐뭇함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전 기금모금에 함께 했던 삼성생명 그분들 중 여성가장도 많았을 것이고 그 속에 나처럼 어려운 가장도 많았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잘 알기에 이런 의미 있는 지원금이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소중한 마음을 생각하면서 바람대로 정말 열심히 사업을 운영할 것이고 처음의 목표와 계획대로 오래오래 미래 방문요양센터와 함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에 감사하고 모든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따뜻하게 진행해 주신 사회연대은행에게도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나 또한 적은 금액이라도 후원해서 더 어려운 환경에 놓인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움의 첫 단추를 끼고자 스스로 다짐하면서 감사한 마음을 짧은 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나눔의

실천

글. 이미례



정말 기쁘고 감사합니다. 최종심사 통과 문자 메시지를 받고 어찌나 좋던지 나도 모르게 한참동안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많이 모자라고, 정리가 덜 된 것 같은 저를 통과 시켜준 것은 저의 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아서인가 생각되어 마음의 부담과 함께 꼭 해내리라, 이루리라 다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창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자격을 갖추기 위해 일터에서 학원으로, 배움터로, 몸은 피곤해도 즐겁게 해냈고 정말 힘든 인간관계를 참고 견디며 노력하다보니 이렇게 좋은 일도, 행운도 있구나 싶습니다.

그렇게 원하던 것이었으나, 수고하지 않고 2,000만원이란 큰돈을 약정하고 보니 나에게 자격이 있나 참으로 부끄럽고 염치없었습니다. 그러나 일금 2,000만원은 창업에 큰 도움이 될 기본 베이스라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하려 합니다.

여기에 자금을 조금 더 추가하고, 그리고 최소의 자금으로 어떻게 완성도 높은 차림을 내놓을지 계획 중입니다.

카페 샌드위치, 커피, 어떻게 하면 고객에게 좋은 먹을거리를 제공하고 나 또한 잘 살 수 있을까? 창업의 전 단계에서 머리가 무겁지만 하나 하나 차근차근 풀어나가려 합니다.

사회연대은행에서 인턴십 연결을 해주어 실무를 익히면서 창업모델을 만들 수 있었고,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도 얻었습니다. 여기서 열심히 배웠던 것을 자산으로 삼으려 합니다.

살다보면 허허벌판에 혼자 서 있을 때도 있고, 때론 어려움에 빠진 가정을 혼자 짊어져야 할 때도 있습니다. 허나 순간 절망에 빠지더라도 주저앉을 수는 없습니다.

다시금 일어서야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묵묵히 희망을 갖고. 왜냐하면 나는 어머니니까요.

어린 자식을 둔 엄마, 경제적 곤경에 빠진 부모의 희망의 끈이 되는 사회연대은행의 활발한 운영으로 건강한 공동체 사회를 이끌어 주시기를 다음에 오는 이를 위하여 바라는 마음입니다.

나눔을 실천하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삼성생명 여러분들과 사회연대은행 관계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회연대은행의 임직원 여러분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나의 2016년은 복되고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그림을 그리며 살아갈지 내일의 내가 기대됩니다.

업체현황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1호점	2005	미용실	헤어글레오
2호점	2005	음식점	고안식당
3호점	2005	음식점	멜로스
4호점	2005	음식점	맛기차 스넥(분식)
5호점	2005	음식점	정식나라
6호점	2005	미용실	에덴 미용실
7호점	2005	학원	코아미술
8호점	2005	기타	신연숙 아로마테라피(화장품)
9호점	2005	기타	샤론의 꽃집(꽃집)
10호점	2005	의류점	밀리오레
11호점	2005	음식점	부부원조순대국밥
12호점	2005	음식점	샘물분식
13호점	2005	도소매	홍쇼핑제품 할인매장
14호점	2005	기타	라커룸(캐릭터판매점)
15호점	2005	음식점	훈이네 분식(분식)
16호점	2005	의류수선	바느질 세상(수예)
17호점	2005	기타	크리스탈 비즈(액세서리)
18호점	2005	음식점	분식(분식)
19호점	2005	음식점	기사식당
20호점	2005	기타	커튼(커텐)
21호점	2005	음식점	호프집
22호점	2005	음식점	작은공간
23호점	2005	미용실	서정혜 헤어터치
24호점	2005	음식점	동원막창
25호점	2005	음식점	정말 맛있는 집
26호점	2005	음식점	강원할머니 족발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27호점	2005	음식점	내가 좋아하는 식당
28호점	2005	음식점	엄마손 칼국수
29호점	2005	미용실	신화헤어라인
30호점	2005	기타	야채코너(야채가게)
31호점	2005	기타	De Colors(이벤트장식)
32호점	2005	음식점	예주국밥
33호점	2005	세탁소	나의 세탁소
34호점	2005	음식점	마산식당
35호점	2005	학원	튼튼영어랩스쿨
36호점	2005	미용실	전명화 헤어미용실
37호점	2005	스킨케어	건도화관(경락마사지)
38호점	2005	미용실	김민정헤어아트
39호점	2005	의류점	옷 공장
40호점	2005	세탁소	세탁 뱅크
41호점	2005	미용실	이미지 미용실
42호점	2005	의류수선	예림옷짱(수선집)
43호점	2005	음식점	푸드2900
44호점	2005	학원	햇살 어린이집(어린이집)
45호점	2005	도소매	탤런트 화장품(화장품)
46호점	2005	학원	비치 플라워
47호점	2005	음식점	웰빙반찬(반찬가게)
48호점	2005	음식점	치킨
49호점	2005	미용실	사발머리
50호점	2005	기타	꽃숲 플라워(꽃가게)
51호점	2005	세탁소	알곡 세탁소
52호점	2005	음식점	갈비냉자 삼겹도령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53호점	2005	기타	마리하우스(인테리어 소품)
54호점	2005	미용실	까꼬보꼬
55호점	2005	음식점	부잣집 파전
56호점	2005	미용실	미라클 미용실
57호점	2005	학원	지천수학학원(수학학원)
58호점	2005	학원	바람글짓기
59호점	2005	미용실	Hair Style by 형
60호점	2005	음식점	유레카 신랑 불닭고치(닭고치)
61호점	2005	미용실	ING헤어샵
62호점	2005	의류점	큰옷
63호점	2005	미용실	정가을 헤어
64호점	2005	기타	현경화원
65호점	2006	음식점	이모네
66호점	2006	음식점	충주사과김치
67호점	2006	미용실	티지헤어샵
68호점	2006	의류수선	슈즈쿨옷수선
69호점	2006	미용실	까망머리미용실
70호점	2006	의류점	브엘세바
71호점	2006	의류점	NARACAMICIE
72호점	2006	학원	꿀벌어린이집
73호점	2006	음식점	새우와 꾸꾸미(골목길)
74호점	2006	기타	경일슈퍼
75호점	2006	미용실	라헤어필
76호점	2006	미용실	헤어드레싱20000
77호점	2006	학원	피카소도예미술아카데미
78호점	2006	음식점	갯바위만두찜빵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79호점	2006	의류수선	브라운스톤수선실
80호점	2006	음식점	한양정
81호점	2006	의류수선	사라수선
82호점	2006	기타	새빛
83호점	2006	의류점	루디아한복주단
84호점	2006	의류점	안나리타
85호점	2006	피부관리	로즈네일
86호점	2006	미용실	지누헤어클럽
87호점	2006	음식점	장안왕족발
88호점	2006	학원	이삭몬테소리
89호점	2006	기타	듀오플라워
90호점	2006	음식점	한성수산
91호점	2006	학원	챌린지 수학전문 학원
92호점	2006	음식점	요리나라
93호점	2006	의류점	스칼렛
94호점	2006	음식점	꾸꾸미장터
95호점	2006	음식점	구라구라 연탄구이
96호점	2006	미용실	나은헤어
97호점	2006	음식점	오리나루
98호점	2006	음식점	왕십리 이모네 곱창
99호점	2006	음식점	흥부네 맛집
100호점	2006	미용실	수 미용실
101호점	2007	음식점	행복이 가득한 동태
102호점	2007	음식점	큰손아지매 씬밥
103호점	2007	음식점	샘골뚝배기
104호점	2007	미용실	거울반사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105호점	2007	미용실	세명헤어
106호점	2007	기타	이레화원
107호점	2007	의류수선	한울수선
108호점	2007	미용실	라벨르
109호점	2007	학원	Holly.E.School
110호점	2007	의류점	제이오골프
111호점	2007	학원	푸른 영어
112호점	2007	음식점	용두동幸꾸꾸味
113호점	2007	의류수선	미소웃수선(구 골든세탁소)
114호점	2007	의류수선	아름다운 홈패션
115호점	2007	음식점	그랜드마트(구 동원한식뷔페)
116호점	2007	미용실	라비아
117호점	2007	피부관리	로앤쥬(로미오&줄리엣)
118호점	2007	음식점	옥경이식당
119호점	2007	기타	보영꽃집
120호점	2007	기타	샤인스토리
121호점	2007	의류점	이솜이야기
122호점	2007	음식점	밥심
123호점	2007	음식점	꾸꾸매나
124호점	2007	미용실	류명금 미용실
125호점	2007	음식점	꼬지왕
126호점	2007	음식점	투다리
127호점	2007	음식점	불로만 바비큐
128호점	2007	의류점	코코리따
129호점	2007	의류점	귀염동이
130호점	2007	미용실	현대헤어샵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131호점	2007	학원	다 감
132호점	2007	의류점	섹시라인(예쁜속옷전문점)
133호점	2007	의류수선	그레이스 옷 수선
134호점	2007	음식점	구이드리(벌통삼겹살)
135호점	2007	음식점	송유리 치킨피자샵
136호점	2007	학원	해달벌 영재교육원
137호점	2007	의류점	가인
138호점	2007	학원	해법영어공부방
139호점	2007	기타	춘Flora
140호점	2007	학원	예능영어학원
141호점	2007	음식점	엄마어렸을적에
142호점	2007	음식점	쌍둥이네 채소랑 반찬이랑
143호점	2007	기타	좋은 상사
144호점	2007	음식점	청수골
145호점	2007	기타	함경식품
146호점	2007	음식점	말근대구탕
147호점	2007	기타	디베스
148호점	2007	음식점	하루반찬
149호점	2007	기타	허브하트
150호점	2007	음식점	해피하우스
151호점	2008	미용실	박현정 헤어샵
152호점	2008	피부관리	화이트 미인
153호점	2008	음식점	용두동幸 이모네꾸꾸味 2호점
154호점	2008	학원	위즈맨 아카데미
155호점	2008	음식점	돈계돈계
156호점	2008	음식점	항아리 칼국수·수제비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157호점	2008	미용실	김유리헤어아트
158호점	2008	의류점	코코로
159호점	2008	학원	헨젤과 그레텔 미술학원
160호점	2008	학원	B.E.T 영어공부방
161호점	2008	음식점	명품김밥 김&밥
162호점	2008	미용실	마벨헤어
163호점	2008	피부관리	뷰티클럽나비
164호점	2008	미용실	현대미용실
165호점	2008	의류점	다멋
166호점	2008	미용실	김주원헤어뷰티샵
167호점	2008	학원	나무아동미술
168호점	2008	미용실	헤어리더
169호점	2008	음식점	용두동幸 이모네꾸꾸味
170호점	2008	피부관리	피부이야기
171호점	2009	음식점	미감마루
172호점	2009	음식점	153분식
173호점	2009	음식점	새삼성건강원
174호점	2009	기타	광덕가구갤러리
175호점	2009	음식점	토성사우나(구,해피분식)
176호점	2009	음식점	용머리두부
177호점	2009	음식점	용두동 이모네 꾸꾸꾸味 3호점
178호점	2009	학원	대표태권도
179호점	2009	미용실	황후화
180호점	2009	학원	원희캐슬 음악학원
181호점	2009	의류수선	바느질나라
182호점	2009	미용실	머슴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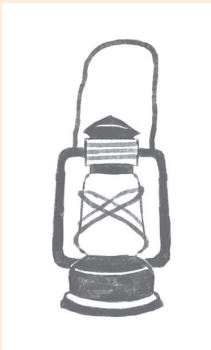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183호점	2009	음식점	야미야미토스트
184호점	2009	미용실	에스텔
185호점	2009	미용실	행복농장
186호점	2009	기타	제일꽃농원
187호점	2009	음식점	훈이네 식당
188호점	2009	미용실	그린헤어
189호점	2009	음식점	에공이 치킨
190호점	2009	음식점	꿀먹은 오리
191호점	2010	의류점	하얀날개
192호점	2010	음식점	소풍
193호점	2010	학원	청명단과학원
194호점	2010	음식점	웰빙촌 목은지
195호점	2010	음식점	빨강이랑 놀자
196호점	2010	음식점	돼지가 까스통에 빠진날
197호점	2010	의류점	주현부띠끄
198호점	2010	미용실	루나 헤어
199호점	2010	음식점	푸드하우스
200호점	2010	세탁소	빨래왕자와 드라이공주
201호점	2010	학원	SOL피아노
202호점	2010	의류점	Free
203호점	2010	음식점	황태해장국
204호점	2010	음식점	무이네베트남쌀국수
205호점	2010	의류점	아디다스테일러메이드
206호점	2010	미용실	유아이헤어샵
207호점	2010	음식점	웰빙분식
208호점	2010	음식점	순임이네 반찬전문점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209호점	2010	기타	수채화정원
210호점	2010	학원	베스트학원
211호점	2011	음식점	샘분식
212호점	2011	의류점	옴파로스
213호점	2011	미용실	머리에술
214호점	2011	음식점	도르리찬방
215호점	2011	음식점	사랑채 가마솥 치킨호프
216호점	2011	음식점	만나죽석두부
217호점	2011	음식점	샌드마마
218호점	2011	음식점	파파준피자
219호점	2011	의류점	모모
220호점	2011	학원	셀파수학전문학원
221호점	2011	미용실	권홍패밀리헤어
222호점	2011	음식점	와쿠와쿠오니기리&오코노모야끼
223호점	2011	의류점	다비다
224호점	2011	미용실	담덕헤어
225호점	2011	기타	조아노래방(구:허브(HUB))
226호점	2011	학원	리틀베베어린이집
227호점	2011	도소매	기장상회
228호점	2011	미용실	시온헤어
229호점	2011	음식점	미락분식
230호점	2011	음식점	하림멕시칸
231호점	2012	학원	예뵘어린이집
232호점	2012	학원	매탄키즈 어린이집
233호점	2012	학원	해법영어교실
234호점	2012	의류점	수영 용품점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235호점	2012	음식점	김밥사랑
236호점	2012	의류점	앞새
237호점	2012	의류점	에셀자수
238호점	2012	음식점	지리산살래국수
239호점	2012	음식점	옥이네 찜마당
240호점	2012	도소매	바른데코누비
241호점	2012	미용실	지현헤어필
242호점	2012	학원	행복한 어린이집
243호점	2012	음식점	커피1번가
244호점	2012	의류수선	남강우수선
245호점	2012	학원	톡톡플러스
246호점	2012	음식점	소풍분식
247호점	2012	음식점	허브곱창
248호점	2012	음식점	카페에살다
249호점	2012	스킨케어	힐링케어
250호점	2012	학원	사랑의하모니 어린이집
251호점	2012	미용실	프리지아헤어샵
252호점	2013	스킨케어	피부스토리
253호점	2013	미용실	o`live hair
254호점	2013	미용실	깍쟁이
255호점	2013	음식점	양쌈떡볶이
256호점	2013	의류점	그레이스샵
257호점	2013	음식점	돈&푸드
258호점	2013	의류점	보디가드
259호점	2013	미용실	야베스
260호점	2013	학원	루체음악학원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261호점	2013	음식점	엄마손칼국수
262호점	2013	도소매	참사랑김치
263호점	2013	스킨케어	스킨케어매니저
264호점	2013	도소매	멜로디
265호점	2013	기타	눈썹공주
266호점	2014	서비스	더 피아노 음악 교습소
267호점	2014	유통	그루
268호점	2014	외식	72420(Chili saigon)
269호점	2014	서비스	헤어빈
270호점	2014	유통	멍멍 강아지
271호점	2014	외식	심유경 지집이
272호점	2014	서비스	mu:m(뮤엠)
273호점	2014	서비스	리본뷰티
274호점	2014	외식	카페길
275호점	2014	서비스	자연어린이집
276호점	2014	서비스	엘리자베스 뷰티샵
277호점	2014	서비스	will 영어전문학원
278호점	2015	서비스	비전컷트전문점
279호점	2015	서비스	동안방
280호점	2015	서비스	애견샵
281호점	2015	서비스	Play School
282호점	2015	외식	부산홈베이킹
283호점	2015	서비스	샤이어 헤어
284호점	2015	제조	마성심 한방꽃차
285호점	2015	서비스	가백
286호점	2015	유통	청정수산

지원순서	지원년도	업 종	점 포 명
287호점	2015	서비스	렛미인 헤어
288호점	2015	서비스	지미 헤어
289호점	2015	유통	대성냉동운수
290호점	2015	외식	정다운 사람들
291호점	2015	외식	요깃거리
292호점	2016	서비스	미 피부샵
293호점	2016	외식	평강이네 꼬마김밥 전문점
294호점	2016	서비스	좋은강아지
295호점	2016	외식	마을카페
296호점	2016	외식	시바의 여왕
297호점	2016	서비스	미래방문요양센터
298호점	2016	외식	카페
299호점	2016	제조	아로마
300호점	2016	외식	토마토 도시락(고려대정문)
301호점	2016	서비스	로즈블라썸



여성가장
창업지원사업 백서



사회연대은행 통권 2017-MC-100-001

발행일 | 2017년 3월

발행인 | 김성수

발행처 | 사회연대은행(사)함께만드는세상

주 소 | 서울시 중구 수표로7 인성빌딩 7층

www.bss.or.kr

전 화 | 02-2274-9637

팩 스 | 02-2274-9643

디자인 | 보람기획